

■ 2017년 전문자료집 ■

부 모 교 육



남동강애인공공합복기관

■ 2017년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 목 차 ■

1. 기능향상지원1팀

- 17-01 가정에서 아이 마음 읽기에 도움을 주는 감정동사·형용사 언어지도 ... 5
- 17-02 초기 문자 지도 방안 11
- 17-03 자기주도성 16
- 17-04 문제행동 및 대처 20

2. 기능향상지원2팀

- 17-05 가족과 함께하는 재활스트레칭 25
- 17-06 시각의 구조와 시지각의 이해 34

3. 직업지원팀

- 17-07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교육:CIRCLES 42

4.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 17-08 2017년 늘푸른동산 사업소개 및 운영방침 51
- 17-09 2017년 2차 늘푸른동산 성인기 발달장애인 교육 56
- 17-10 2017년 3차 늘푸른동산 부모교육-장애자녀의 성교육 지도방법 .. 70

5. 보호작업장 열린일터

- 17-11 2017년 열린일터 사업 안내 및 운영지침 교육 81
- 17-12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교육:CIRCLES 98

가정에서 아이 마음 읽기에 도움을 주는 감정 동사·형용사 언어지도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7년 9월 4일 ~ 9월 22일
장 소	언어재활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가정에서 아이 마음 읽기에 도움을 주는 감정 동사·형용사 언어지도

I. 들어가며

아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매일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 표현 확대를 위한 표현 및 상황 예시들을 준비했으니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주세요~

1. 일상생활에서의 아이 감정변화를 관찰해주세요
2. 아이의 감정변화가 있을 때 다양한 감정표현을 이용하여 아이의 마음을 읽고,
공감해주세요

II. 감정표현과 예시

1. 기쁨요

표 현	예 시
재미있다	그렇게 웃는 걸 보니 뽀로로 비디오가 재미있나 보구나!
기쁘다	오늘 oo이가 oo해서 기쁘구나!
즐겁다	친구와 손잡고 춤을 추니까 즐겁지?
신난다	엄마가 맛있는 피자 사줄게. 신나지?
신기하다	저 오리들이 우리가 던져 준 과자를 먹고 있네. 신기하지?
행복하다	oo가 oo해서 행복하구나!
좋다	oo이는 딸기가 좋구나~ 엄마도 딸기가 좋아.
귀엽다	동생이 아장아장 걷고 있네. 정말 귀엽지?
반갑다	한참 못 봤던 친구를 만나니 반갑지? 자, 인사하자. 안녕?
예쁘다 (아름답다)	길가에 피어있는 개나리가 참 예쁘지? 봄이 왔나 보다.
만족스럽다	블록으로 멋진 집을 완성했구나. 이걸 보니 만족스럽지?

표 현	예 시
사랑스럽다	아기가 정말 사랑스럽구나~
두근거린다 (설렌다)	이제 코끼리차를 타러 갈거야.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지?
놀랍다	친구가 퍼즐을 완성했네. 정말 놀랍다. 그렇지?
편안하다	침대에 누워 있으니 편안하지? 이제 자자.
상쾌하다	산에 열심히 올라와서 후~ 하고 숨을 쉬니 정말 상쾌하지?
다정하다	친구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 찍자~
흐뭇하다	엄마는 네가 혼자서 밥을 잘 먹는 걸 보니 흐뭇하구나
다행이다	아이쿠! 유리컵을 놓쳤구나. 그래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야
자랑스럽다 (뿌듯하다)	엄마는 네가 심부름을 잘 해 주어서 네가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해
튼튼하다	리프트를 탈 때 무서웠지만 네가 옆에서 엄말 지켜줘서 튼튼했어
흥겹다	저 음악을 들으니 너무 흥겹지?
기대된다	이제 영화가 시작될거야. 기대되지?

2. 슬퍼요

표 현	예 시
슬프다	oo이가 친구랑 헤어져서 슬프구나.
서럽다	친구가 너의 장난감을 밟아서 서러웠구나. 괜찮아. 실수로 그런 걸 거야~
속상하다	저 쪽으로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해서 속상하니? 다칠까 봐 그래.
불쌍하다 (가엾다)	강아지가 엄마를 잃어버렸나봐. 불쌍하고 가엾다.
가슴 아프다	꽃이 시들어 버려서 가슴이 아프구나.

표 현	예 시
힘들다	언덕을 오르는 게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자!
괴롭다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괴롭구나.
피곤하다 (지친다)	하루 종일 썰매를 타서 피곤하고 지치지? 집에 가서 쉬자.
아프다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아프지? 엄마가 호 해줄게.
답답하다	빨리 가야 하는데 길이 막혀서 답답하지?
섭섭하다	엄마가 네가 완성해 놓은 로봇을 몰라서 섭섭했구나.
서운하다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가서 이제 못 본대. 서운하지?
억울하다	동생이 잘못했는데 네가 대신 혼나서 억울하지?
걱정된다	oo이가 떨어 질까봐 걱정되는구나. 엄마가 잡아줄게.
외롭다 (허전하다)	놀이터에 갔는데 놀아줄 친구가 없어서 외롭구나.
한심하다	동생이 흘리고 먹는게 한심하니?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도와줘야해.
우울하다	밖에 나가 놀고 싶은데 비가 와서 우울하구나.
안타깝다	한 개만 더 맞추면 되는데 마지막 퍼즐이 없어서 안타깝다.
원망스럽다	엄마가 너의 마음을 몰라주고 야단쳐서 원망스러웠지?
후회하다	동생에게 화가 나서 동생을 밀어버린 거 후회되지?
아깝다	아이스크림이 바닥에 떨어졌네. 아까워라.

3. 화나요

표 현	예 시
화나다	친구가 너의 물건을 갖고 가서 화가 났구나.
싫다	약 먹고 주사 맞는 게 싫어? 하지만 빨리 나으려면 참아야해.
짜증나다	00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엄마도 짜증이 났어. 다음에는 엄마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어.
밉다	아빠가 매일 늦게 들어오고 같이 놀아 주지 않아서 밉았구나.
싫증나다	뽀로로 장난감은 싫증나서 더 이상 가지고 놀고 싶지 않구나.
얕밉다	동생이 너의 케이크를 빼앗아 가서 얕밉니?
약오르다	친구가 너를 자꾸 놀려서 약오르니? 그러지 말라고 말해 보자
불편하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불편하구나. 그렇다면 벗어도 좋아.
기가 막히다	엄마가 너의 말을 믿어 주지 않아서 기가 막히니?
신경질나다	친구가 네 앞을 가로막아서 신경질이 났구나.
귀찮다	동생이 놀아달라고 조르는 것이 귀찮았구나.
괘씸하다	친구가 너를 기다리게 하고 돌아오지 않아 괘씸하다고 생각했니?
심술나다	엄마가 약속을 들어주지 않아 심술이 났구나.
질투나다	친구가 멋진 로봇을 선물로 받아서 질투가 나니?
지겹다	00이가 계속 똑같은 만화영화만 보다보니 지겨웠구나.
참을 수 없다	00이가 만화영화 소리가 안 들려서 참을 수 없구나.
맘에 안든다	엄마가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니?
기분 나쁘다	친구가 너를 모른 척 해서 기분 나빴구나.
불만이다	네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서 불만이었구나.
불쾌하다	이상한 냄새가 나서 불쾌하구나.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

4. 무서워요

표 현	예 시
무섭다	갑자기 천둥소리가 크게 나서 무서웠구나.
겁이 나다	강아지가 너를 물까봐 겁이 났구나.
어렵다	낱말 맞추기 게임이 어려웠니?
긴장되다	이제 롤러코스터가 곧 출발할거야. 긴장되지?
부끄럽다	사람들이 많은데 바지가 내려가서 부끄러웠구나.
불안하다 (초조하다)	엄마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서 불안했구나.
두렵다	엄마가 너를 혼낼까봐 두렵니?
당황하다 (황당하다)	휴지를 버려야 하는데 쓰레기통을 못 찾아서 당황했구나.
낯설다 (생소하다)	새로운 교실에 들어와서 낯설고 생소하구나.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징그럽다	바퀴벌레가 네 옆을 지나가서 징그러웠니?
떨리다	높은 곳에 올라오니 떨리지?
놀라다	풍선이 갑자기 터져서 깜짝 놀랐구나.
어지럽다	빙글빙글 놀이기구를 타니 어지럽지? 조금 참아보자.
부담되다	선생님께서 내 주신 숙제를 다 해야 하는게 부담되니?
곤란하다	친구에게 같이 놀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데 곤란하구나.
끔찍하다	강아지가 차에 치인 것을 보니 끔찍하지?
안절부절 못하다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지 못할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구나.
복잡하다	미로를 통과해야 하는데 길이 복잡하네. 잘 찾아보자.
다급하다	쉬가 마려운데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다급했어?
헛갈리다	어느 입구로 들어가야 하는지 헛갈렸구나.

[출처] 민우의 언어치료 - <http://cafe.naver.com/slp1004>

초기 문자 지도 방안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7년 11월 13일 ~ 2017년 12월 1일
장 소	서면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초기 문자 지도 방안

언어는 자신을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도구이며, 사람과 사람 간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사고의 수단이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학습의 중요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

1. 읽기 발달

1단계: 읽기 이해 전단계

- ① 말없이 그림만 쳐다보기
- ② 그림을 지적하기
- ③ 그림의 명칭을 이야기하기
- ④ 그림에 대해 질문하기

2단계: 이야기 구성 능력이 없어 ‘난 ~ 못 읽어요’ 같은 의사를 표현하는 단계

3단계: 그림을 보고 마음대로 이야기 만들기 단계

4단계: 의미가 비슷하게 꾸며 말하기 단계

5단계: 단어나 구절을 암기하여 이야기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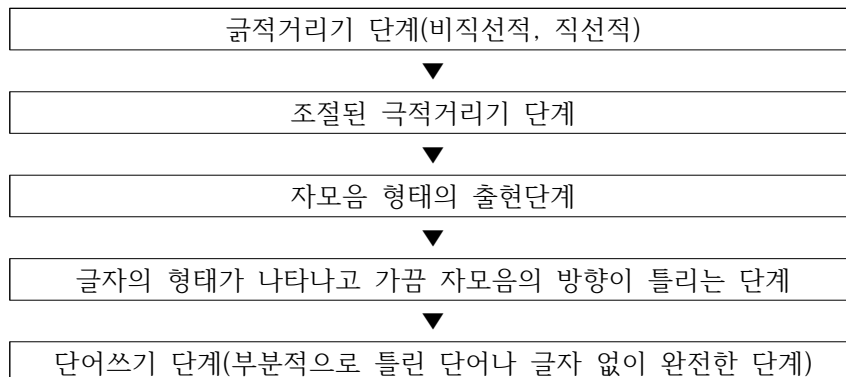
- ① 책에 나온 글자의 암기를 통하여 50% 이하의 단어나 구절을 사용하여 이야기하기
- ② 책에 나온 글자의 암기를 통하여 50% 이상의 단어나 구절을 사용하여 이야기하기

6단계: 글자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글자를 읽을 줄 몰라 “난 못 읽어요.”와 같은 의사를 표현하는 단계

7단계: 글자를 읽는 단계

- ① 글자를 보고 한 문장을 기준으로 25% 이하로 똑바로 읽기
- ② 글자를 보고 한 문장을 기준으로 50% 이하로 똑바로 읽기
- ③ 글자를 보고 한 문장을 기준으로 75% 이하로 똑바로 읽기
- ④ 글자를 보고 한 문장을 기준으로 25~100% 이하로 똑바로 읽기

2. 쓰기 발달



3. 학습 방법

1) 발음중심 지도방법

발음 중심 지도는 문자 부호를 처음에는 시각적 형태로 저장하고, 다음에 음운 기호로 번역하는 문자 기호의 음성 기호화를 강조한다.

① 자모식(자모법, 기억니은식)

‘ㄱ’에 ‘ㅏ’를 더하면 ‘가’가 되고, ‘ㅓ’에 ‘ㄴ’을 더하면 ‘버’가 된다는 식의 문자 지도 방법이다. 실제 지도에서는 기본 음절표를 활용하여 자모인 ‘ㄱ, ㄴ, ㄷ, ㄹ.....ㅎ’과 ‘ㅏ, ㅑ, ㅓ, ㅕ.....ㅣ’ 등을 가르치고, ‘ㄱ’에 ‘ㅏ’를 더하면 ‘가’가 되며, ‘가’에 받침 ‘ㄱ’을 더하면 ‘각’이 된다는 식으로 지도한다. 이 방법은 문자라는 집합체를 구조적으로 분석, 인지할 수 있는 성인 교육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추상적 인식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지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② 음절식(음절법, 가갸식)

-체계적 자모 중심 교수법

음절의 체계적인 조직표인 기본 음절표를 활용하여 먼저 ‘가갸거겨....’식의 개음절을 지도하고, 다시 여기에 받침을 덧붙여 폐음절 ‘각각격격....’ 등의 음절을 지도한 다음에 문장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하나하나의 음절을 가르치되 그 음절의 구조와 결합 원리 그리고 각 자소의 음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분석적으로 가르친다. 이 방법은 한글의 특성을 살려 문자 체계의 이해를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 음절표의 음절 140개 중 사용하지 않은 음절이 1/3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음운 변화에 따른 발음을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장점	단점
①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한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① 너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어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② 자음과 모음의 글자 요소와 그 글자 요소의 음가를 대응시켜 발음의 규칙성을 지도할 수 있다. 특히 자소·음소의 대응이 매우 규칙적인 한글지도에 알맞다.	②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단위까지 다루므로 아동의 학습 흥미 유발, 지속이 곤란하다.
③ 일단 자소·음소의 대응 관계를 파악하게 되면 이 규칙을 새로운 낱말 읽기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학습의 전이도가 높다.	③ 의미보다는 문자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므로 독해 지도와 연계되지 않는다.
④ 철자에 유의하게 되므로 맞춤법과 정서법 학습에 유용하다.	④ 지나치게 자소·음소 대응을 강조하게 되면 받침이 있는 음절, 음운 변동이 있는 낱말들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③ 발음중심 지도 방법의 장·단점

2) 의미중심 지도방법

의미 중심 방법은 읽기에서의 의미 형성이 글의 의미 그 자체보다는 글에 대한 독자의 적극적인 가정이나 추측에서 시작되며, 글에 대한 해석도 독자가 하는 가정이나 추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하향식 읽기 모형에 토대를 두고 있다.

① 단어식(단어법)

‘아버지’, ‘우리’ 등과 같은 단어를 중심으로 지도하는 방법이다. 시각 어휘나 학생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낱말을 지도한다. 단어식은 무의미 문자의 기계적인 암기보다 진일보한 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글자를 일일이 시각화하여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② 문장식(문장법)

‘철수야, 안녕?’처럼 처음부터 문장을 통하여 문자를 지도하는 방법이다. 문장식 지도법은 사물에 대한 이해는 전체적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언어운용의 실제적 단위인 문장을 직접 다룸으로써 생활과 직결되고, 학생의 흥미를 북돋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자·음가의 연결 등을 소홀하게 다루기 쉽다.

③ 언어중심 지도 방법의 장·단점

장점	단점
① 단어나 문장을 하나의 단위로 읽어나가기 때문에 발음보다는 의미 파악에 초점을 둘 수 있다.	① 의미 파악에 과도하게 초점을 두어 정확한 발음을 지도하기 어렵다.
② 제한된 단어, 문장만 지도하여 학습이 쉽다.	② 제한된 단어, 문장만 지도하므로 학습량이 적다.
③ 실생활에서 익숙한 단어나 문장을 중심으로 지도하므로 학습의 흥미유발, 지속적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일단 배운 글자는 그 형태 또는 기억에 의해 쉽게 읽을 수 있으나 배우지 않은 단어나 문장은 거의 읽을 수 없다. 즉 학습의 전이가 매우 낮다.
④ 문자 읽기에 그치지 않고, 읽은 내용을 생활과 관련시켜 말해보는 방법을 곁들여 읽기와 말하기 지도를 병행할 수 있다.	④ 기억이 나지 않는 단어는 추측하여 읽게 된다(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추측하여 읽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음).

3) 절충적 지도방법

첫째, 지도의 첫 단계에는 의미 중심 방법을 택해 친숙하고 쉬운 단어(또는 짧은 문장)를 그림과 결들여 제시한다.

둘째, 교사가 먼저 읽어주면서 학습자로 하여금 글자의 전체 모양을 익히고 그 발음을 따라 해보게 하여 기억하게 한다.

셋째,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한다.

넷째, 어느 정도 단어나 문장 읽기를 통해 문자 언어의 의미, 단어, 문자의 구조 등 문자 학습에 익숙해지고 학습량이 확보된 이후에는 발음 중심 지도 방법으로 넘어간다.

다섯째, 발음 중심 지도 방법에서는 글자의 구성 원리, 구조, 자소와 음소의 대응 관계 등 규칙적이며 원리적인 것을 배우게 한다. 이 때는 기본 음절표를 적절히 활용한다.

문자언어교육의 역사를 보면, 음운법칙을 강조하는 언어교육법과 전체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교육법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도 어떠한 교육법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법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가정에서 아이에게 한글을 지도하면서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이가 학습 동기를 갖는 것을 우선으로 한 뒤 아이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찾아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학습부진아의 글자놀이학습이 기초적인 문해능력에 미치는 효과」 추남순,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의 한글 읽기에서 통글자 및 낱글자 지도효과의 비교」 박시연, 고신대학교 대학원

「학습장애아를 위한 음운인식 지도방안」 김길순, 학습장애연구 제5권 제2호

「비지식적 지도 방법에 의한 유아의 읽기와 쓰기 행동의 발달」 이영자, 이종숙, 덕성여대논문집

자기주도성



팀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시	2017년 11월 13일 ~ 2017년 12월 1일
장소	놀이심리지원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자기주도성

말 그대로 스스로 일의 주체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바로 일을 끌고 나가는 성질을 뜻한다. 개념은 자율성에다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속성을 첨가한 것, 즉 자
신 삶에 있어서 창조적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예측, 준비, 계획하는 잠재적 능력이
라고 하였다.

자기주도성의 특성

주도성은 주도적 행동을 취하는 정도에 있어 개인들이 가지는 차이를 나타내는 기
질적 구성개념으로 간주되는데, 높은 주도성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파악하고, 행동
하며 적극성을 보여주고,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주도성이 낮은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빨리 포기하며 변화시키기 보다는 환
경에 적응하려는 경향이 더 있다고 합니다.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놀이를
조직화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독립적, 협동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와 일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보고 자율성, 인내력,
적극성, 자존감 등을 주도성의 요소로 보았다.

아이가 주도하면 부모는 따라 준다.

리더쉽은 주도성에서 시작된다.

- 노파심에서, 때로는 조바심이 앞서는 바람에 자녀를 과소평가하여 부모가 먼저
챙겨 주고 이끌어 주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인지학습이란 아이가 능동적으
로 참여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세 이전, 주도성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

- 주도성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는 일곱 살 이전의 유아기입니다.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아이의 능력은 어떤 계획과 순서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는데, 그 가운데 어떤 특성이 차별화되어 매우 급속하게 발달하는 시기가 있다
고 봅니다. 이것을 발달에서는 ‘결정적 시기’라 말합니다.
- 에릭슨은 일곱 살 이전의 아이들이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취하는
능력들이 이후 사회성 발달과 성공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유용한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세 유아들이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자율’이란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구속받지 않고 해보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반복할 때 학습이 된다.

- 지금 아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아이가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학습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시작해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활동들을 지지해 주고 함께해 줄 때 아이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아이가 혼자서 배워 나가는 방법입니다.
- 아이 스스로 주도하는 활동들은 본인이 가장 학습하기 원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활동들을 부모가 따라 해주고 함께 참여하여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반응해 줄 때 아이는 결국 스스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도적인 아이가 될까?

- 아이가 새롭게 발견할 것들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스스로 이해한 뒤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행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현재 생각과 논리를 현실에 적용하고 때로는 한계를 느껴 가며 스스로 지식의 영역을 확장해 갈 때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 ‘주도적인 아이’란 이러한 과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아이를 말합니다. 능동적 학습은 아이가 스스로 원하여 활동에 참여할 때, 그리고 직접 경험한 것들에 대해 논리나 법칙을 자발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가능해 집니다. 이 때, 아이가 주도하는 어떤 활동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고, 지지자의 역할을 꾸준히 해주면 아이의 능동적인 학습은 단계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주도성이 중요한 걸까요?

- 아이가 어떤 활동을 주도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원해서 스스로 참여 하는 것은 곧 아이의 내면에 숨어 있던 흥미와 관심, 의도와 능력에 적합한 것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는 자신이 주도하는 활동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를 이해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흥미를 느껴야 집중한다.

-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 수준과 적절하게 맞을 때 비로소 흥미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실행에 옮길 정도의 호기심이 생겼다면 비교적 주의를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제부터 목표는 ‘과정을 즐기는 것’

- ‘자기가 세운 계획을 스스로 진행하는 과정’을 경험한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과에 목표를 두는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내보이고 증명해 보이는 기회로써 과제를 대하기 때문에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은 비교적 쉬운 과제를 선택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곤 합니다.
- 과정을 중시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과제 수행 자체가 자신의 실력평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가 자신의 능력이 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전략을 사용했거나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전략 수행 계획을 세워 재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주도하는 바에 따르기

- 무슨 뜻 인가요?

어떤 활동이든 놀이든 아이가 먼저 시작할 때까지 엄마가 기다렸다가 이를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먼저 제안하지 마세요. 엄마는 뒤로 물러나 아이를 지켜보다가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 비로소 나서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흥미로워하는 것을 엄마가 응원해 줄 때 아이는 자신만의 능력을 보여주며 능동적으로 변해 갑니다.

아이가 가지고 노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순간에 아이에게 흥미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 있는 활동을 할 때 동기가 생기고, 스스로 발견한 흥미로운 정보일 때 잘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것에 더 많이, 더 자주 반응해 줄수록 아이는 점점 더 많은 것에 관심을 볼일 것이고, 더 많이 배우려는 의욕이 강해질 것입니다.

-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하는 방식 그대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함께 활동하세요.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굳이 부모의 원칙대로, 부모의 방식대로 갖고 놀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언제나 아이가 선택한 방식을 존중하고 따라 주세요.

*참고문헌

- 김민하, 아동의 발달권 권리인식과 자기주도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정미, 가르치지 말고 반응하라, 한울 수북(2017), p52~75

문제행동 및 대처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7년 12월 08일 ~ 12월 22일
장 소	미술심리지원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문제 행동 및 대처

1.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현재 및 장래의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아동이 원래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아동의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정의하는 기준은 통계적, 발달적, 사회문화적, 정신의학적 기준이 있다.

1) 발달적 기준

아동의 연령에 따른 신체적, 지적 발달양상과 성격 및 사회성의 발달양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문제행동의 판단과 결정에 매우 중요하며 각 아동의 발달특성과 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 통계적 기준

통계적 기준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은 대체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인간행동의 특성은 어떤 요인이든지 무선적으로 선별한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한다면 측정치의 분포는 정규분포곡선을 형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떤 특정치가 통계적 기준이나 평균에서 일정한 범위를 넘어 이탈될 때 이를 이상이나 문제행동으로 정의한다.

3) 사회문화적 기준

사회적 기준의 배경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된 ‘이상적 모습’이나 ‘바람직한 것’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며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통념에서 벗어나게 되면 문제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4) 의학적 기준

의학에서는 증상이나 증후, 질병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정상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러한 정상상태가 파괴된 것을 이상이라고 한다.

5) 기타기준

Rosenhan과 Seligman은 한 사람의 행동을 비정상이라고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필요와 충분조건의 개념을 제시했다.

① 고통(불편감): 고통의 존재여부는 문제행동을 분류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문제행동을 온전하게 정의할 수 있는 필요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② 부적응: 적응행동이라고 하면 첫째, 한 개인의 행동이 그 사람의 생존을 증진시켜야 한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만족과 행복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한 개인의 행동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사회의 안녕과 복지를 강력하게 저해하는 행동은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③ 비합리성과 불가해성: 행동이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비정상 또한 문제행동이라고 정의한다.

④ 예측불가능성과 통제력의 결핍: 일상적인 행동이 갑자기 통제를 상실하거나 행동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반복될 때 문제행동으로 정의한다.

⑤ 비인습성: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행동의 지침으로 사용하는 고유한 규율과 습관들이 있다. 이러한 사회의 인습에 위배되는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므로 문제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변별

변별이란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학습된 행동이 일어나지만 다른 자극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경향을 말한다. 변별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장기간의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차별강화를 통해서다.

3. 강화

뒤 따르는 행동의 강도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후속사건이나 자극을 강화라고 한다. 강화는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즉시 뒤따라야 한다.

4. 처벌

혐오스럽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을 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시키는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별로 알려져 있다. 즉, 육체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문제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나쁜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처벌에서 오는 부작용 때문에 효과적인 수정기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처벌의 원칙은 첫째, 한 번에 한 가지 문제행동에만 적용해서 처벌받아야 할 행동을 명확히 인식시킨다. 둘째, 처벌의 기준은 확실하고 분명해야 한다. 셋째, 초기에는 강도가 높은 처벌방법을 사용한다. 넷째, 문제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한다. 다섯째, 문제행동이 발생한 즉시 처벌한다. 여섯째, 처벌받는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일곱째, 처벌받는 특정행동 이외의 다른 모든 행동은 집중적으로 보상한다.

5. 소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행동이 강화될 수 없도록 이제까지의 주어진 강화를 차단하는 것이다.

6. 행동수정의 원리

행동수정은 개인의 행동목록 중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학습의 원리를 응용하고 있다.

1) 새로운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한 원리

- ① 정적 강화원리: 적응행동을 향상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행동이 출현할 때마다 긍정적 강화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 ② 점진적 접근원리: 이전에 전혀 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며 그 하위단계의 행동들을 계속 강화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목표행동을 접근해 나가도록 한다.
- ③ 모방원리: 아동에게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바람직한 행동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해서 그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목표행동을 배우도록 한다.
- ④ 신호제지원리: 아동에게 적시에 필요한 적응 행동을 가르치려면 잘못된 행동을 하기 바로 전에 올바른 수행에 대한 신호를 주어서 문제행동의 발생을 제지하는 것이다.
- ⑤ 변별원리: 아동에게 측정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려면 상황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신호를 알려주고 아동의 행동이 그 신호에 적합한 때만 강화해서 문제행동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새로운 행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원리

- ① 대체원리: 이미 효과가 없어진 강화물을 가지고 아동의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에 사용했던 강화물보다 더 효과적인 강화물을 제시해서 이미 형성된 목표행동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
- ② 간헐적 강화원리: 아동이 강화를 받지 않고도 형성된 행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표행동이 강화를 받는 빈도를 점차 감소하거나 간헐적인 강화방법으로 전환한다.

3)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 또는 중단시키기 위한 원리

- ① 포화원리: 아동이 문제행동을 그만두게 하려면 그 행동을 싫증이 날 때까지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허용하거나 강요하는 방법이다.
- ② 소거원리: 아동이 문제행동을 한 후에는 어떤 강화도 받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을 조성해서 문제행동을 중단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 ③ 상반행동의 강화원리: 아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정하고자 하는 행동과 모순되거나 또는 동시에 그 행동과 함께 수행될 수 없는 상반행동을 강화한다.
- ④ 부적 강화: 문제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향상되었을 때 즉시 혐오스러운 상황이 끝나도록 상황을 조정함으로써 문제행동의 재발생을 예방하는 원리이다.

4) 정서적 반응수정을 위한 원리

- ① 회피원리: 아동이 특정한 상황을 피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피해야 할 상황과 함께 불쾌한 상황을 동시에 제시해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공포감소의 원리: 아동에게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서는 아동이 안정된 상태에서 강화를 받고 있는 동안에 특정의 공포 상황을 제시해서 점차적으로 공포증을 감소시키는 원리다.

7. 행동수정의 목표와 계획

1) 행동수정의 목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관계나 일상의 활동을 방해하는 비현실적인 불안이나 공포, 문제행동을 제거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다.

2) 행동수정의 실행계획

치료자는 행동수정의 목표를 세우는 이유를 설명한다.

아동이 행동수정의 결과로 얻고 싶은 긍정적 변화와 목표행동을 구체화 한다.

아동과 치료자는 진술된 목표들이 아동 자신의 변화인지를 확인한다.

설정된 수정목표들이 현실적인지에 대해 확인한다.

수정목표를 이룬 후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의 여부를 검토한다.

수정목표를 이룬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문제에 대해 점검한다.

8. 제언 및 결론

문제행동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어느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연령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아동기 문제행동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예언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아동들의 문제행동이나 병리현상을 그대로 둔다면 부적응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적절한 교정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시기를 놓쳐 문제가 더 악화되면서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까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최적의 시기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미(2005). 아동행동수정. 서울: 학지사.

여광응, 조인수(2007). 발달장애아 부모 및 교사를 위한 행동수정의 이론과 실제.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김기석(1998). 학습과 행동. 서울: 교육과학사.

가족과 함께하는 재활스트레칭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일 시	2017년 11월 07일 ~ 2017년 11월 30일
장 소	1:1개별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과 함께하는 재활 스트레칭

◎ 스트레칭(stretching)이란?

스트레칭(stretch)은 펴고 잡아당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칭(stretching)이란 신체 각 부분의 근육(筋肉)이나 건(腱)을 얼마 동안 펴거나 늘리는 것을 가리킨다. 가령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하품이나 기지개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스트레칭으로 볼 수 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위로 뻗치며 기지개를 했을 때의 상쾌함, 개운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스트레칭은 일반적으로 반동이나 충격을 가하지 않고 근육이나 건(腱)을 천천히 늘리는 정적(靜的) 스트레칭이다.

스트레칭은 구령에 맞추어 반동을 주면서 행하던 종래의 체조보다 에너지의 소비가 적으며, 안전하고 근육통의 예방과 그 회복에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칭을 적절히 실시하면 몸의 유연성이 향상되고 스포츠 활동 시에 일어나는 상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로회복이나 기분이 상쾌해져서 심리적인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다.

◎ 스트레칭(stretching)효과성?

1.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육체를 더욱 편안하게 한다.
2. 보다 자유롭고 쉬운 동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정 능력을 도와준다.
3. 관절과 근육의 가동범위를 확장시킨다.
4. 근육의 부상을 막아준다.(스트레칭을 실시한 근육은 실시하지 않은 근육 보다 압박에 더욱 잘 저항한다.)
5. 활동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격렬한 운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6. 신체 지각력을 발달시킨다.(스트레칭 할 때 근육이 늘어나는 것에 집중한다.)
7.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 스트레칭 종류

1. 동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은 앞·뒤 숙이기와 같은 리드미컬한 동작 등에서 나타나는 운동 유형이다. 동적 스트레칭의 가장 실질적인 이점 중의 하나는 박자나 구령에 맞추어 쉽게 수행될 수 있어 준비 운동 시에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며, 정적스트레칭에 비하여 덜 지루하여 참여자의 흥미가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적 스트레칭은 근육과 이를 지지하는 결합조직이 너무 빠르게 신장될 경우 조직 내의 부적응이 초래될 수 있으며, 조직의 갑작스런 신장은 근의 파열 및 손상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신경에 대하여 적응이 이루어지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스트레칭이란 근 수축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가장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한다.

2. 정적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은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으로써 동작을 약간 반복하거나 또는, 거의 반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정적, 혹은 완만한 스트레칭이 동적 스트레칭보다 더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며, 근육이 잘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조금씩 사용하여 관절의 가동범위 내에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어, 근육이 약간 당긴다는 느낌이 올 때 멈추어 고정상태를 유지해주는 동작이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지점까지 근육을 늘린 후 그대로 고정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동적 스트레칭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근육의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강도를 감소시켜 반사적 수축을 줄여주고, 근육을 이완시켜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해준다.

유연성 향상을 위해 정적 스트레칭이 최적의 훈련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동적 스트레칭에 비하여 에너지 소비가 적고, 조직 손상에 의한 통증이 거의 없으며, 근육통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적 스트레칭의 단점은 운동으로는 강도가 약하고, 참여자에게 다소 지루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또한 동적 운동을 거의 무시한 채 정적인 유연성만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좋은 스트레칭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을 혼합한 것이라고 한다.

◎ 올바른 스트레칭(stretching) 실시 방법

올바른 스트레칭은 근육에 집중한 주의력과 더불어 편안하고도 안전한 스트레칭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위, 아래로 반동을 주거나 고통스러운 정도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근육에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그러나 정확한 방법으로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실시하면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동작이 더 쉬워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1.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편한 스트레칭에 10~30초 정도 시간(개인에 따라 조절)으로 반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2. 편한 스트레칭

- ① 근육에 부드러운 긴장을 느낄 정도의 편안한 자세를 10~30초간 유지한다.
- ② 근육긴장 해소에 도움이 되며, 근섬유 조직을 운동하기 좋도록 준비시킨다.

3. 호흡

- ① 호흡은 천천히 리듬에 따라 실시한다.
- ② 스트레칭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호흡이 불가능하다면, 편한 스트레칭이 될 수 없다.
- ③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에는 숨을 멈추지 않는다.

4. 시간 헤아리기

- ① 마음속으로 초를 조용히 센다.(적당한 긴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② 호흡의 리듬에 맞춰 시간을 헤아린다면 편안한 호흡과 더불어 알맞은 시간을 느낄 수 있다.
- ③ 스트레칭에 익숙해진다면 느낌만으로도 시간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5. 진전된 스트레칭

- ① 편한 스트레칭 후 약간의 긴장감을 근육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10~30초 동안 유지한다.
- ② 진전된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6. 신장반사의 원리

- ① 반동을 이용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근육이 수축 하게 되어 부상을 초래하게 된다.
- ② 반동이나 과도한 스트레칭은 근섬유 조직의 미세한 파열로 육체적 손상과 고통을 유발시킨다.
- ③ 이러한 손상은 근섬유에 상처섬유를 형성시킴으로써 점차적으로 근육의 탄력성을 상실시키고 근육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

◎ 영·유아를 위한 운동

엄마와 함께하는 유아의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과 골격, 소화기계통, 신경계통 등 신체적 기능 향상으로 아기 면역력을 증강시켜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와 줄 수 있다. 또한, 엄마와 유아의 유대감을 높여주고, 아기의 정서적 긴장을 이완시켜 심신의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기는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후 스스로 기지개를 켜므로 밤새 쉬었던 몸의 기운의 흐름을 열어주어 하루의 활동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혈의 순환을 촉진시킨다. 이때 엄마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기에게 스트레칭을 해준다면 더욱 더 좋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저녁에 자기 전에 해주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정서적 긴장도로 이완되어 숙면을 취하게 되고 성장호르몬도 많이 분비되면서 밤새 잘 크게 된다.

▶ 스트레칭의 순서

1. 팔 주무르기 : 팔의 안쪽과 바깥쪽을 어깨에서부터 손목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쓸어준다.
2. 양팔을 가슴으로 모았다 펼치기 : 아기의 양 손을 잡고 팔을 가슴에 모은 후 다시 펼쳐준다. 그리고 가볍게 양팔을 흔들어 준다.
3. 기지개 : 아기의 두 팔을 위로 올려주고 쭉 펴주면서 조금씩 위로 당겨준다
4. 날개짓 : 아기의 손을 잡고 나비가 날아가듯 옆으로 벌려 위로 올려주었다가 가볍게 내려준다.
5. 다리 주무르기 : 사타구니에서 부터 발가락까지 발의 앞과 뒤를 모두 가볍게 쓸어주며 주무른다.
6. 무릎 복부에 가져가기 : 아기의 발을 잡고 무릎을 구부려 배에 붙여준다
7. 자전거 타기 : 한 쪽 발 씩 번갈아가며 자전거 타듯 무릎을 구부렸다 펼쳐준다.
8. 양반다리 : 양반다리자세로 발을 복부에 붙이고 좌우로 천천히 이동한다.
9. 손발 교차하기 :오른손과 왼발을 잡고 가볍게 마주치며 박수를 친다. 그런 후 부드럽게 손은 엉덩이 쪽으로 발은 어깨 쪽으로 교차해준다. 그리고 손발을 펼친 후 가볍게 흔들어 준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0. 발바닥 박수 :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 박수치면서 자극해준다.
11. 발로 코, 귀 찾기 : 아기의 발목을 잡고 코와 귀로 발을 가져간다. 아기의 표정을 살피면서 편안해 하는 정도까지만 해주고 무리하게 하지는 않는다.
12.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게 쓰다듬기 : 양손으로 아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게 쓰다듬어 내리며 스트레칭을 정리한다.

이러한 동작들은 모와 서로 따뜻한 관계에 있고 주변 환경이 조용한 경우 아이들이 세상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에 덧붙여 어린이의 기본적인 감정적 욕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애정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 책임감
- 부모,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에 의한 개인적 가치의 인식 및 자아감
- 신체적·정신적 능력 발달을 위한 놀이 기회 등이 요구된다.

◎ 뇌성마비 학령기 아동을 위한 운동

뇌성마비 아동들의 특징 중에 경직으로 인한 근육의 짧아짐은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해당됩니다. 특히 하지의 발목 부분은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직은 말단 부위부터 침범이 되므로 발목→종아리→허벅지→골반 쪽으로 경직이 발생되며 이는 아동의 서거나 걷는 움직임, 앉는 자세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중에 학령기에 접어들어 이러한 문제점이 커지게 되면 수술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육이 짧아지게 되는 과정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서서히 진행 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운동, 약물, 수술의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을 통한 방법에는 스트레칭과 아이가 스스로 하는 활동이나 물리치료 등이 있으며, 약물은 신경차단술, 흔히 보톡스를 사용해 경직을 감소시키고 약물의 효과가 있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근육의 길이를 확보하게 됩니다. 수술의 방법은 짧아진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잘라내는 방법으로 보통 학령기가 지난 후에 문제가 되는 부위를 동시에 수술하게 됩니다. 이 부분 중에 가정에서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시행했을 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스트레칭입니다. 국내 병원이나 기관에서는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치료사가 개인당 아동을 상대로 하는 시간이 한정적이고, 그 부위의 판별이나 방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크게 스트레칭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가정에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칭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아이의 통증을 심하게 유발 시키는 범위까지는 금물

－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워낙 짧아진 근육의 경우 통증에 발생은 당연하나 이러한 경험이 지속적이고 강렬하게 다가올 경우 근육의 파열, 스트레칭에 대한 심한 거부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스트레칭의 범위보다는 정확한 자세로 최대한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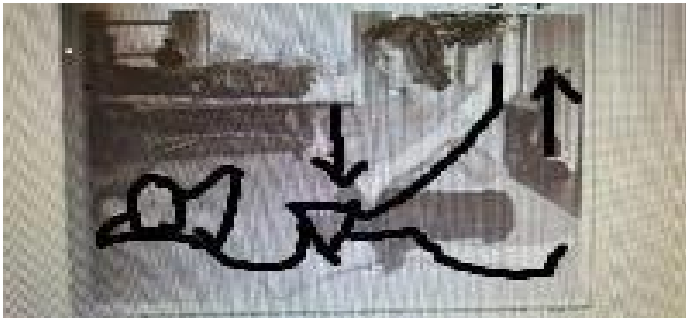
2. 고정 필수!

－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의 자세와 그 지속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표로 하는 근육을 제외한 부위는 보호자들의 몸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아이에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스트레칭의 효과 또한 크게 떨어집니다. 시간은 최소 1분 이상, 아이가 저항이 심하거나 너무 어리면 최소 30초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3. 누르는 힘은 너무 세지 않게 합니다.

- 스트레칭의 원칙이 되는 각 관절부위의 범위는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아이들 마다 문제가 되는 부위도 다소 차이가 있고, 그 범위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일단 정확하게 고정을 하고 지긋이 눌러주는 기분으로 범위를 늘려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은 아이들의 근육을 순간 파열시켜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 가장 쉽게 침범되고 보행, 기립에 문제가 되는 근육인 허벅지 뒷부분 근육입니다. 반대쪽 다리를 고정시키고 아동의 상태에 따라 다리를 올려 근육을 늘려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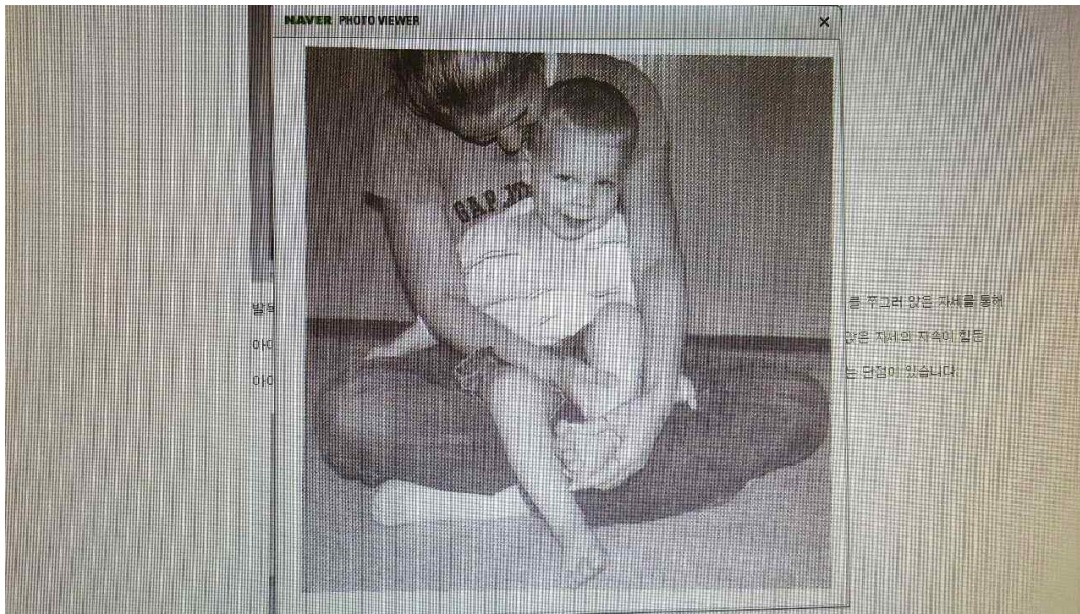
- 고관절 Adductor(허벅지 안쪽)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아이가 통제가 가능하면 위의 사진과 같은 방법도 괜찮지만 더욱 밀착해서 무릎위로 보호자가 올라가 고정을 하고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법도 효과적이고 쉽습니다.



- 내전근을 얹은 자세에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 발목을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뒤에서 감싸 안으며 아이를 쭈그려 앉은 자세를 통해 아이의 무게와 보호자의 약간 누르는 힘을 통하여 발목관절을 늘려줍니다. 이 때, 통증이 심하거나, 쭈그려 앉은 자세의 지속이 힘든 아이에게는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체중을 이용하여 누르는 방법은 힘이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발목관절의 가동범위를 늘려주는 모습입니다. 보통 발목 관절은 경직도가 대부분 발생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림처럼 발목을 잡고 돌려주거나, 이리저리 늘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을 느끼고 통증을 방지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 결론

간단해 보이지만 스트레칭은 생각보다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몇 동작만 스트레칭을 해도 온 몸의 근육을 골고루 자극해 전신운동이 됩니다. 몸을 바르게 정렬하는 기본자세에서부터 스트레칭을 실시하면 몸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활동 시에 일어나는 부상 및 상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짧아진 근육들을 늘릴 수 있는 정적인 동작과 동적인 동작 모두 신체에 무리가 없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조차도 틈틈이 아동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한, ‘운동 시간’이라는 강박에서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재활 스트레칭방법들을 활용하여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쉽게 나타나는 경직성 근육의 짧아짐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적용방법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가정에서 해주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참고문헌]

1. 프레데릭 데라비에 등저/이신연 역. 아나토미 스트레칭 가이드(Ⅰ). 삼호미디어.
2. 정진우(1996). 스포츠 물리치료학. 대학서림.
3. 권정현 외. 정적스트레칭의 청소년 유연성 및 기능수행능력. 한국체육과학회지. 2003
4. 고완진. 가족이 함께하는 신체정서운동: 스트레칭. 국내학술기사. (월간)실천특수교육(2013)
5. <http://cafe.naver.com/imove/148> 발췌

시각의 구조와 시지각의 이해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일 시	2017년 12월 04일 ~ 12월 15일
담당자	작업치료사 임주성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의 구조와 시지각의 이해

1. 시각이란?

우리는 삶을 살면서 타인이나 외부 환경과 같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 이를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감각들 중에서 시각은 환경을 인식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각은 다른 감각에 비해 빠른 결정을 통해 환경으로부터 신속한 조절을 가능하게 하며, 운동·인지·언어·감정적 기능을 위한 주요한 수용기로 작용한다. 시각은 지각 및 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며 운동계획과 자세조절에 영향을 주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작용한다. 시각의 손상은 단순히 감각 수용의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을 포함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전반에 걸친 능력을 변화시킨다. 시각의 손상에는 구조적 손상 및 신경학적 손상 등이 있으며, 시야 결핍, 무시, 안구움직임 장애, 양안 장애, 조절 장애, 지각 장애, 시각관련 전정 기능 장애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역할	내용
환경인식	외부감각의 70%가량 차지
운동조절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 성공여부를 확인하고, 미세한 수정이 이루어짐

[표1 시각의 중요성]

2. 시각적 처리과정

시각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빛을 통해 인식한다. 인식된 시각 정보는 중추신경계에서의 지각과 통합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출력되게 된다. 다양하게 들어오는 빛의 정보를 선별하고 필요한 정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리과정이 요구된다. 효과적인 시각적 처리과정은 각각의 대뇌반구 피질에 영향을 받고 30여개의 시각적 피질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각적 처리과정은 크게 집중시와 주변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집중시는 사물을 지각하고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특징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으로 초기에 시야를 조직화하고 안정시켜야 효과적이다. 차 안에서 책을 볼 때, 머리가 흔들리더라도 글자를 읽을 수 있게 하는 데 작용한다. 주변시는 기능적 운동성과 연결하여 환경 내의 사건을 감지한 다음 자신과의 거리나 공간상의 위치를 파악한다. 길을 걷다가 주위에서 날아오는 물체에 황급히 피하는 것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지각 결손의 경우, 다른 감각-운동 시스템과 함께 공간적 정보를 처리하는 주변시 처리과정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손상은 집중시 처리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이상이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주위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집중시와 주변시가 서로 협력하여 작용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다른 감각정보와의 통합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각적 처리과정을 흐름상으로 보았을 때, 시각적 감각 입력의 등록을 거쳐, 도형 재인지를 거쳐, 시각적 기억으로 전이되고, 시각적 인지를 거쳐 시각자극을 인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시각적 감각 입력은 안구운동 조절, 시야 및 시력을 포함하는 단계로, 안구운동 조절은 지각적인 안정성을, 시야와 시력은 시각적 입력의 질과 양을 조절하게 된다. 다음 단계인 도형 재인지는 사물의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특징을 분별하는 것으로, 모양·윤곽을 구별하고 색·재질 등을 분별하게 된다. 시각적 기억은 시각 자극의 조절과 재인지된 사물에 대한 분석과 형태를 완성시키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인지는 도달한 시각적 정보를 조절하고 다른 감각정보와 통합하여 문제 해결, 계획 수립, 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전 단계의 기능이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 단계의 손상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각적 인지의 이상은 실인증이나 실독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도형 재인지의 이상은 전경-배경의 감소 등으로, 시각적 감각 입력의 이상으로 시야 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

3. 시각의 기술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각 기술이 있다. 동공반응, 시력, 대비 민감도, 안구 정렬, 시야, 시운동 조절, 시각고정, 단속성 안구 운동, 안구 추적, 수렴과 조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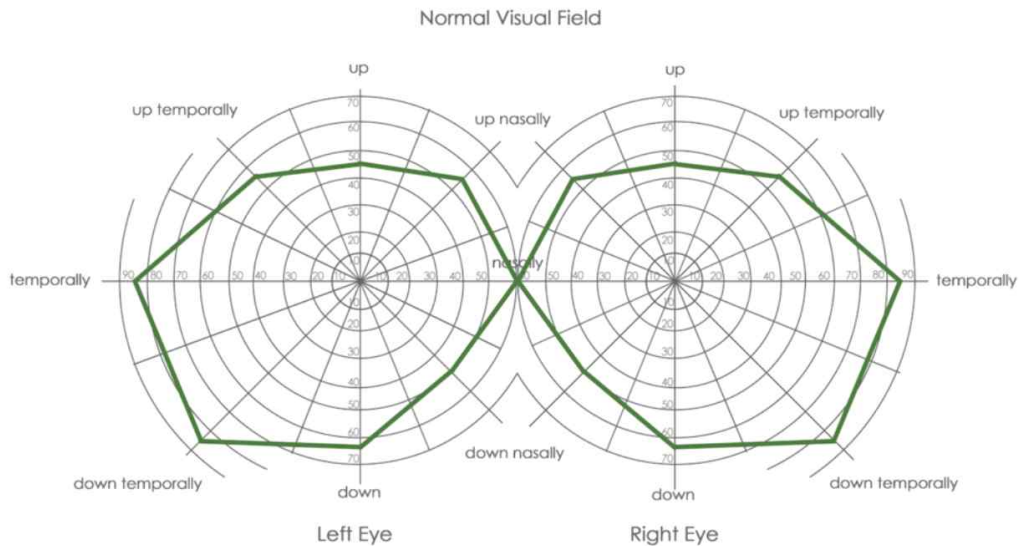
동공반응은 빛에 반응하여 동공이 그 형태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의 정확한 초점을 맞추기 위해 결정적인 요소이다.

시력은 안구의 시각체계와 중추신경계의 처리과정이 통합하여 생성되며, 시각의 질에 영향을 준다. 원거리 시력의 이상은 깊이지각·공간 판단·안면인식 등에, 근거리 시력의 이상은 읽기·쓰기·정밀한 기능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중심시의 이상은 읽기·쓰기·미세운동의 구별에 영향을 주며, 주변시의 이상은 전반적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비민감도는 사물을 탐색하고 인식하는 중추신경계의 능력과 연관이 있다. 사물의 흑백 정도나 휘도를 구별하며, 경계 구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안구 정렬은 정상적인 감각과 운동체계의 통합에 의해 형성되며, 눈의 정렬을 통해 초점을 맞추고, 단일 이미지를 지각하도록 한다. 뇌신경, 근육 손상, 뇌간 손상 등으로 인해 사시와 같은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안구 정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복시·현기증·행동의 서투름·멀미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시야는 공간을 인식하는 시각체계의 영역으로 머리의 회전없이 볼 수 있는 외부의 범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쪽과 안쪽은 60도, 아래는 70~75도, 바깥쪽은 100~110도 정도로 볼 수 있다. 중심시야의 손상은 사물의 세밀한 파악의 어려움, 읽기 등의 기능적 수행의 어려움을 일으키며, 아래시야의 손상은 균형 저하, 운동 저하, 좁은 걸음, 벽 가까이 걷기 등의 행동을 보인다. 위시야의 손상은 읽기, 쓰기 등에 어려움을 보이게 되며, 우세손과 같은 쪽의 손상은 미세 손 기능 활동에 영향을 준다.



시운동 조절은 시각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작용하며, 물체의 상을 중심위로 가져 오고 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안정적인 주시·단속적 기능·추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운동 조절에 이상이 발생하면, 시각적 입력이나 주의집중을 방해하여 안구 움직임 속도, 조절, 협응에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

시각고정은 시각적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전정감각이나 체성감각 등의 다른 감각들과 연합하여 작용하여 움직이는 환경에서나 사물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단속성 안구 운동은 시야 내에서 변화하는 순서화된 빠른 눈의 움직임을 말하며, 공간 내에서의 중심와의 표적을 향해 빠르게 반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빠르게 초 단위로 일어나게 되며, 읽기 등과 같은 활동에 이용된다.

안구 추적은 망막에 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머리의 보상적인 움직임이 없이도 시야를 넘어서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며, 정정-안구 반사와 서로 보완하며 작용한다. 안구추적은 공중에 뜬 축구공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활동에서 이용된다.

수렴과 조절은 시야축과 관련있는 위치의 변화를 의미하며, 시야 축의 각도가 증가하는 것은 수렴, 감소하는 것은 개산이라 한다. 이러한 양안시의 유지 및 고정을 통해 안구를 정렬하고, 보다 명확한 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3. 시각의 구조

시각정보는 감각정보 수용기인 눈을 통해서만 입력이 된다. 눈을 통해 들어온 시각정보는 시각신경로를 따라 중추신경계로 입력이 되게 된다. 좌우의 눈을 통해 각기 들어온 시각정보는 서로 다른 신경로를 따라 전달이 되며, 최종적으로 대뇌에서 종합되어 지각하게 된다.

1) 구조적 구성

우리의 눈은 복잡하며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시각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며, 안구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기도 한다.

우리가 제일 바깥쪽에서 볼 수 있는 눈꺼풀은 안구의 직접적인 손상과 과도한 빛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깜빡거리는 동작을 통해서 각막의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각막은 안구의 전면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주요한 굴절력을 지니고 있다.

수정체는 이차적인 굴절력을 지닌 구조로, 안구의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그 형태를 조절하여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홍채는 밝은 곳에서는 이완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수축하여 안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방수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공간에 차있는 투명한 액체로 혈관이 없는 각막과 수정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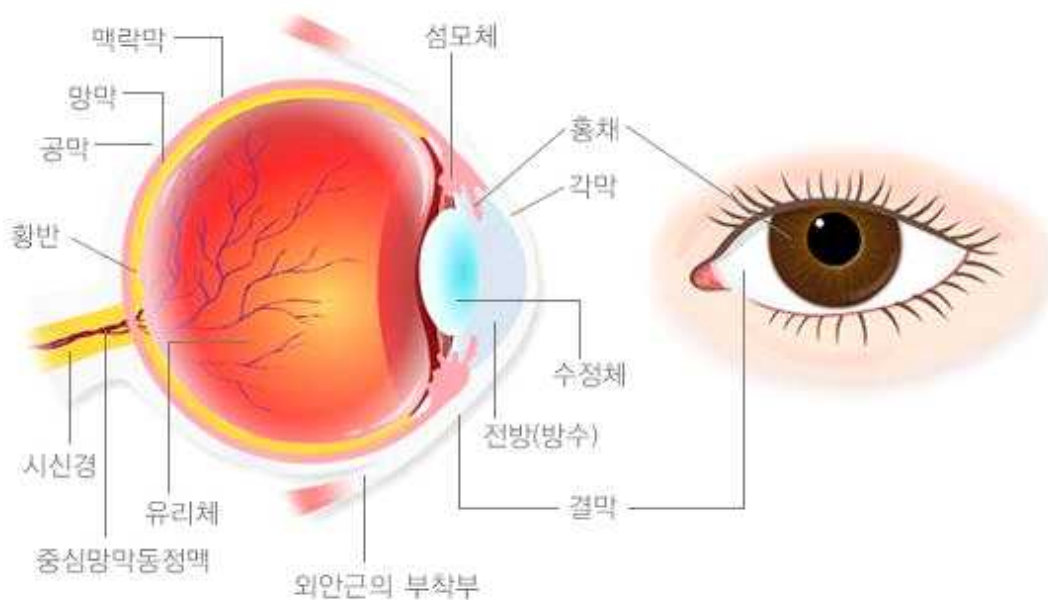
유리체는 수정체 뒤에 존재하고 있으며, 빛을 투과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망막은 안구의 뒷면에 자리하고 있는 안쪽의 막으로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실질적인 광각각을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 원뿔세포와 막대세포의 두 가지 광수용기를 포함하여, 색과 빛을 구별하게 된다.

황반은 망막에서 광수용기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공간으로 이 곳에 초점을 맞출 때가 가장 잘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형태인식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며, 추적이나 급속운동이 나타나게 된다.

공막은 안구를 감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의 조직으로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맥락막은 공막과 망막 사이의 구조로 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안구에서 입력된 시각정보는 신경을 타고 대뇌로 입력되어 지각되고 인지된다. 뇌신경 2번인 시신경을 거쳐 중뇌의 시각교차에서 좌우로 교차하거나 그대로 주행한다. 시각로를 따라 주행하던 감각정보는 시상에 있는 가쪽무릎핵을 거쳐 한번 연결하고, 이후, 시각로부챗살이라는 시각경로를 따라 후두엽의 1차 시각영역으로 전달된다. 일부 시각정보는 가쪽무릎핵에서 연결하고 중뇌로 연결되어 위둔덕으로 전달된다. 1차 시각영역으로 전달된 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두엽, 마루엽, 관자엽 등과 연합하여 공간을 지각하거나 형태를 지각하는 등의 시각정보를 해석하고 인지하게 된다. 중뇌의 위둔덕으로 전달된 정보는 시각반사조절에 사용되어, 반사적인 움직임에 사용된다.

[표2 시각 전도로]

입력된 시각정보는 중추신경계에서 그 정보를 해석하고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각적 구별기술이 사용되며, 이를 통해 우리가 물체의 형태를 구별하고 위치나 공간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적 구별기술에는 형태 구별, 형태 항상성, 깊이 지각, 시각적 연속성, 전경-배경 지각, 공간내 위치, 지형적 지남력 등이 있다.

형태구별은 사물의 서로 다른 유형을 구별하는 능력으로 시지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조작하며 탐색하는데 작용하며, 추상적인 시각체계와 특징적인 시각체계의 두 가지 과정으로 상이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책상에서 연필을 찾는다는 활동에 미루어보면 추상적인 시각체계에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연필을 찾는 경우이며, 특징적인 시각체계에서는 선호하는 특정한 연필을 찾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형태항상성은 형태와 물체를 다양한 환경, 자세, 크기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도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물건은 그 크기가 변하거나 회전을 했거나, 내부가 색칠이 되어있더라도 같은 도형으로 인식하는 데 작용한다.

깊이 지각은 입체시와 양안 시각을 통해 3차원적인 물체를 해석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통해 환경에서의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시야 내에서의 정확한 손의 움직임을 가지며, 이동에서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시각적 연속성은 시각폐쇄라고도 부르며, 물체가 불완전하게 제시되거나 그 일부만 제시되더라도 전체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어지럽혀진 책상 위에서도 일부만 보고도 책의 형태나 펜의 모양을 인식하는 데 작용한다.

전경-배경 구분은 목적이 되는 형상(전경)과 관심에 들지 못하고 희미하게 지각되는 형상(배경)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많은 양의 동전이 든 저금통 속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동전을 찾거나, 서랍 안에서 원하는 펜을 찾는 데 작용한다. 다양한 시각 정보들을 통합하여 판단하게 되며, 모서리가 기초가 되어 인지하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공간내 위치는 물체를 다른 것과 관계적으로 배치하고, 자신과 사물간의 위치 관계를 등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사물이 무엇인지 등과 같은 지각과 관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물건·장면·언어 등을 인지하고 사물을 조작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형적 지남력은 많은 요인들이 결합된 복합적인 능력이다. 친숙한 길을 찾거나 새로운 길에 익숙해지는 능력을 말하며, 공간 내에서 자신의 방향을 찾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되어 공간 내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동에 대한 목표 및 동작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방향 결정을 위해 특정한 공간을 인지하는 공간인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적절한 시각 처리과정과 깊이·형태 지각 및 작업기억, 기억력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6. 결론

시각은 우리가 외부환경을 인식하는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또한 시지각이 잘 조직화되지 않고서는 입력된 시각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단순히 본다는 것을 넘어 사물과 다른 사물과, 또는 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적지향적인 활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지각을 조직화하여 활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지각적인 요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물건을 만지고 잡고 움직이고 신체의 상호작용을 느끼는 다양한 감각 경험들이 필요하다. 특히나, 시지각은 읽기, 쓰기, 셈하기, 미세한 조작활동 등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발달이 요구되어 진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시각의 구조적·신경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시각 활동 및 행동 특성에 대한 고려에 도움이 되며, 시지각 기술 이해를 통해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고 활동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참고문헌

1. 박수현(2009). 작업치료사를 위한 임상지침서. 군자출판사
2. Barbara(2010). 시각,지각,인지. 영문출판사
3. Jean Ayres(2009). 감각통합과 아동. 군자출판사
4. 정혜림 외(2015). MVPT-3를 사용한 전 학령기 아동의 시지각 능력에 대한 기초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5. 홍소영 외(2005). 편마비 환자의 시지각 능력과 균형유지 능력간의 상관관계. 대한작업치료학회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 - 성교육 : CIRCLE



팀 명	직업지원팀
일 시	2017년 3월~9월 19:00~19:30 (매월 첫주 목요일 총6회)
담 당	강명진
장 소	별관 3층 보람터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 - 성교육 : CIRCLES

1. CIRCLES소개

-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성적 개인 공간과 사회적 거리, 사회-성적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83년 미국에서 처음 소개됨.
- 발달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는 사회적 거리와 친밀감의 수준, 적절한 사회적 행동의 미묘한 뉘앙스를 아는 것에 있다고 보고 간단한 로드맵을 만들어 사회적 상황을 따라가게 하는 로드맵을 찾아내었음.
- 여섯 가지 색깔로 된 Circle을 사용해 다양한 수준의 친밀감과 관련된 행동을 범주화시켜 교수모델로 개발함.
- 각각의 CIRCLES는 색깔, 행동, 친밀감과 거리감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함.
- 발달장애인들이 친밀감과 대인관계의 다양한 수준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좋은 사회적 기술은 자존감 위에 구축된다고 봄.
- 발달장애인이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고 존중감과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시작하며, 자존감과 자율성을 지닐 때 안녕을 느끼게 된다고 봄.

1)Circle 구성

- 총 3부로 구성됨. (제1부 친밀감과 대인관계 ; 제2부 폭력 그만 ; 제3부 에이즈 -안전한 방법) 본 교육은 1부만 다루었음.
- 친밀감과 대인관계는 개인의 다양한 대인관계에 있는 거리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활동 비디오를 통해 참가자들의 학습참여를 도움.
- 활동 비디오는 참가자들이 Circle 개념을 행동으로 옮기고 토의하도록 도우며, 역할놀이 매트와 조각인물 그림, 개별 그래프를 학습할 때 사용함.

2)Circle 개념

- 여섯 가지 색을 지닌 Circle를 사용해 사회적 거리와 친밀감을 가르치는 방법
- 중심 Circle의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색을 지닌 Circle는 중심에서 멀어짐에 따라 그에 맞는 행동과 느낌, 활동을 갖음.
- 예시: 파란색 Circle에 들어가는 “가족”은 자신이 껴안을 수 있고, 애인에게는 키스할 수 있으나 멀리 떨어진 주황색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는 손만 흔들 수 있음.

3)여섯 가지 색의 Circle와 그 의미

(1)보라색의 사적인 Circle

- 당신은 당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 당신이 원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만질 수 없다.
-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한 그들을 만질 수 없다.

(2)파란색의 껴안는 Circle

- 당신을 껴안을 수 있고, 또 당신이 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과 애인이다.

(3)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당신이 가볍게 안을 수 있는(다정하지만 친밀한 껴안음은 아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한 날에 초대받아 온 친한 친구들이다.

(4)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당신은 아는 사람들과 악수하고 또 당신이 누군가에게 소개될 때 악수한다.

(5)주황색의 손 흔드는 Circle

- 당신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또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서 인사한다.

(6)붉은색의 낯선 사람 Circle

- 당신은 지역사회와 도우미들과는 일과 관련하여서만 접촉한다.
 - 당신은 낯선 사람들을 만지지 않는다.
 - 낯선 사람들은 당신을 만지지 않는다.
 - 당신은 당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안 돼”라고 말할 때와 자리를 떠날 때를 결정한다.
-
- Circle는 다양한 수준의 친밀감을 구별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도움.
 - 이 프로그램은 사회규범과 개인 나이에 따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침.
 - 발달장애인들이 개인적 책임감을 키우고 사회통합을 잘 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음.
 - 발달장애인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발달시킴으로써 자기결정과 상호 존중을 잘 하도록 도와 복잡한 세상에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행동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함.

4) 발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Circle

- Circle는 사회적 역할을 범주화 하고 그와 관련된 “ 만짐, 말, 신뢰”와 함께 그에 해당되는 색을 지닌 Circle를 포함함.
- 활동비디오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설명해주고 대화의 수준과 만족의 수준, 만짐의 수준도 보여줌.
- 참가자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그에 적절한 색의 Circle을 일치시켜 그에 맞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함.
- 활동비디오를 통해 자신들의 실제 삶에서의 관계를 비교하고 대조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를 평가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 속에서 허용될 수 있는 만짐, 말, 신뢰를 선택하도록 배울 수 있음.

5) 3개의 “T” : 만짐(Touch), 말(Talk), 신뢰(Trust)(⇒사회적 경계)

- Circle에 있는 3개의 “T”인, 만짐(Touch), 말(Talk), 신뢰(Trust)는 여러 관계들에 있는 행동, 인지, 애정을 상징화 한 것임.
- 다양한 관계들에 있는 전반적인 정서적 분위기를 나타냄.

6)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

- 6개의 질문은 참가자들이 관계에 대해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도록 도움.
- 각 활동비디오에는 6개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고, 이것이 특별한 대인관계를 맺는 Circle을 결정하게 하는 결정 요소임.
- 대인관계에 있는 친밀감의 특징 6가지 요소

-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알아왔는가?
-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 사람을 보아왔는가?
-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일반적인 유대를 그 사람과 맺고 있는가?
- ✓당신은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는가?
-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얼마나 깊은가?
-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한가?

- 6가지 결정요소들 각각의 양이 크면 클수록 대인관계는 더 친밀함.
- 이 결정요소들을 사용해 발달장애인 자신들의 실제 대인관계를 평가할 수 있음.
- 이 훈련으로 참가자들이 배운 것을 다양한 장소에서 실제 대인관계에 일반화 시키도록 준비시킴.
- 이 6가지 질문과 Circle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이나 거리감에서의 상호작용을 알게 되면 오래된 관계와 새로운 관계를 충족시키는 만짐, 말, 신뢰를 스스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함.

2. 각 과의 구성과 주요한 내용

- 각 과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목표, 방법, 요약, 평가, 심화학습, 지원활동, 심화학습, 비판적이고 주요한 사고를 위해 만일의 사항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눔을 하는 것으로 구성됨.
- 목표에 대해 확인 또는 전 시간 내용을 복습하고, 활동비디오를 시청한 후 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활동 비디오의 내용을 질문하고 확인함.
- 활동비디오의 내용과 참가자의 실제 상황을 대입해 질문하고 확인함.
- 3개의 “T”에 관하여서 확인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익힘.
- 이 외에 각 과의 내용에 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를 제시하고 답해보도록 함.

1) 제1과 : 나에 관한 것(보라색의 사적인 Circle)

-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줌.
- 내가 나에 대해 잘 알아야하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확인함.
- 보라색의 사적인 Circle에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특별한 사람임을 강조하도록 함. 모든 사람은 보라색의 사적인 Circle에 는 혼자만 들어가며 원래 굉장히 소중한 존재임을 알도록 함.

2) 제2과: 가족(파란색의 껴안는 Circle)

- 이 과에서 다루는 가족은 직계가족임을 알도록 할 것.
-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음.
- 이 Circle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3가지 “T”를 확인하도록 함.(세 범위를 다 포함하나 낭만적인 것은 아님.)
- 만짐: 사랑을 보여주지만 낭만적인 사랑이 아닌 방식으로 꼭 껴안는 것.
- 말: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는 것.
- 신뢰: 가지 가족을 전적으로 믿는 것.

3) 제3과: 애인(파란색의 껴안는 Circle)

- 이 과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표현방법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음.
- 애인이 있는 경우 소재를 해보면서 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인식하도록 함.
- 애인이 없는 경우 이상형을 이야기해보며 애인으로서 부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도 확인하도록 도움.(미성년자, 기혼자, 폭력, 거짓말, 외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 등)
- 배우자 선택 기준 및 동성애 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나 가치판단은 제외하고 알려줄 수 있음.

- 이 Circle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3가지 “T”를 확인하도록 함.(세 범위를 다 포함하고, 낭만적임.)
- 만짐: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방식으로 껴안고 친밀하게 만지고 키스함.
- 말: 가장 친밀하고 낭만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음.
- 신뢰: 서로의 느낌을 존중하고, 서로 믿으며, 서로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임을 믿음.

4)제4과: 친척(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이 과에서는 친척의 개념, 호칭에 대해 다룸(친가, 외가).
- 친척과의 관계에서 성인기인 발달장애인의 지위(위치)를 알고, 어른으로서 그에 맞는 행동과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 친척과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하도록 함.
- 연애하지 않기, 애인과 하는 낭만적인 만짐 없기, 사적 신체부위 만지지 않기, 비밀이 있으면 안 되고, 비밀 지키지 않도록 함.
- 공적인 신체부위는 만질 수도 있음.
- 만짐: 가볍게 껴안으면서 애정을 나타내지만 꼭 껴안거나 낭만적이지는 않음.
- 말: 개인적인 소식을 나눌 수는 있으나 친밀한 것은 아님.
- 신뢰: 친척들을 대개 믿는데, 일부로 상처를 주지 않으며,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줄 것임을 믿음.

5)제5과: 친한 친구들(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우정 관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함.
- 성적 활동이 제외된 좋아하는 관계이며, 같이 있는 것이 기분 좋은 관계임.
- 애인과는 다른 차원으로 애인보다 소중한 관계일 수 있음.
- 친구의 유무를 묻고, 없다고 하는 경우 내가 “친구 되어주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줌.
- 친구와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역할: 위로, 수다, 비밀이야기, 적당한 장난, 다투었을 EO 화해하는 방법 등
- 우정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알기
(지시, 명령, 홍보기, 거짓말, 왕따, 성적 관계, 욕하기, 고자질, 폭력, 시기질투, 비난, 도벽, 돈거래, 비밀폭로 등)
- 만짐: 특별한 경우에 친절하고 애정 어린 방식으로 가볍게 껴안음.
- 말: 사적인 이야기나 유쾌한 잡담을 함께 이야기함.
- 신뢰: 일부로 자신의 감정을 해지치 않는다는 것을 주로 믿을 수 있음.

6)제6과: 이웃 사람들(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고 손만 만질 수 있는 관계임을 이해하도록 함.

- 일상적으로 “예의”있게 할 수 있는 대화나 인사를 알려주기(날씨이야기, 인사하기, 안부 묻기, 정치에 관한 이야기, 뉴스나 드라마 등 TV프로그램 이야기 등)
- 일상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태도를 갖추도록 적절한 피드백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음(인사는 한번만 하기, 함부로 만지지 않기, 도움주기 등)
- 내 이웃을 의심하기도 해야 함을 알려주도록 함.
- 비밀이 있으면 안 되고, 성적인 활동도 안 되며, 이런 일이 발생된 경우 부모와 기관의 직원에게 알릴 것을 이야기해주어야 함.
- 만짐: 이웃사람들과 인사할 때만 그들과 악수하고, 이 때 손만 만짐.
- 말: 사적인 관계를 갖지 않지만 정중하게 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발달장애인이 대화의 깊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란색 Circle이 나를 드러낼 수 없고 친절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봐야하는 관계임을 이해하도록 도움)
- 신뢰: 이웃사람은 조금만 믿는데, 그들의 이름 외에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임.

7)제7과: 아는 사람들(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이 과에서는 학교나 기관의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공적인 신뢰관계에 있는 아는 사람임을 알도록 함.
- 존경하는 관계이고 예의를 꼭 지켜야하는 관계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아님.
- 권위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믿는 것임.
- 선생님이나 기관 직원 외에 비슷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음,(자원봉사자, 실습생, 사회복무요원, 자활근로자 등)
- 만짐: 권위가 있는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만 그들과 악수하며 이때 손만 만짐.
- 말: 아는 사람들과 사적인 관계를 갖지 않지만 정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님.
- 신뢰: 아는 사람들을 조금만 믿는데 이름 외에는 아는 게 없고, 그들의 전문성을 믿음.

8)제8과: 어린 아이들(주황색의 손 흔드는 Circle)

- 이 과에서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 다루지만 주로 모르는 아이들에 대해 알려줌.(조카 등은 제외)
- 성인인 발달 장애인이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해야함을 이야기함.
- 친인척을 포함해 아이들이 예쁘거나 귀여워도 하지 말아야할 행동: 만지거나 뽀뽀, 사적신체부위 만지지 않기

-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경우나 욕을 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역할극 및 발화훈련을 통해 표현해 볼 수 있음.⇒ 자기옹호 하도록 지도(하지 마, 그만해, 나쁜 거야,/내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
-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경우 성인 발달장애인이 주의할 사항을 인지하도록 지도함, ⇒놀이의 주도자는 아이들임.
- 만짐: 손 흔들고,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여주지만 절제 만지지 않음
- 말: 짧게 응답해주지만 길게 말하지는 않음.
- 아이들을 거의 믿지 않는데, 그들이 미성숙하고 어른의 책임을 모르기 때문임.

9)제9과: 지역사회도우미(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

-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지역 내 도우미들은 명확한 신분이 있음.
- 잘 모르는 경우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정수기코디, 방역담당자, 인터넷설치기사, 배관공, 집배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 부정적인 내용을 인식하도록 함.(무조건 믿을 구는 없는 관계임.)
- 가족이 없는 경우나 혼자 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기, 개인적인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고, 돈이나 선물, 칭찬을 해 주는 것에 속지 않기 등
- 만짐: 일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만지지 않는 관계임
- 말: 일과 관련해서만 말할 수 있음.
- 신뢰: 일과 관련해서만 믿을 수 있음.

10)제10과: 의료진들(붉은색의 낯선 사람들의 Circle)

- 의료진에는 의사 간호사 외에도 접수계원, 약사 등도 있음을 이해하도록 함.
- 사적 신체부위를 만질 수 있으나 이는 성폭력 등 성적 활동이나 관계가 아닌 일과 관련해서만 일어나는 일임을 이해하도록 함.
- 의료진은 몸이 아플 때 찾아가지만, 몸이 아프지 않아도 검진을 위해 만날 수 있음.
- 사적인 정보를 이야기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일과 관련해서만 하는 경우임을 이해하도록 함.
- 만짐: 일과 관련된다면 그들을 만지거나 자신을 만질 수 있음.
- 말: 일과 관련해서만 말함.
- 신뢰: 함께하는 일과 관련해서만 믿을 수 있음.(그들의 실력, 전문성 등)

11) 제11과: 완전히 낯선 사람들(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

-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임(길가의 행인, 쇼핑몰 내 쇼핑객 등)
- 낯선 사람과 말을 할 때 : 내가 실수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등 얼마 되지 않는 상황임.
- 적절한 사과, 괜찮다는 응대, 길을 잃었을 때 할 수 있는 첫 말 걸기 등 직접 역할극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음.
- 낯선 사람이 주는 것은 먹지 않기, 돈을 빌려주거나 도움주지 않기, 착한일 하지 않기, 짐 들어주지 말기, 끌려갈 때는 소리를 지르고, 단둘이 있는 경우 저항으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가르침(역할극을 통해 해 볼 수 있음.)
- 만짐: 낯선 사람을 만지지 않음.
- 말 : 낯선 사람과 말하지 않음.
- 신뢰: 낯선 사람들을 믿지 않음.

3. 정리

Circle는 사회적 역할을 범주화 하고 그와 관련된 만짐, 말, 신뢰와 함께 그에 해당되는 색을 지닌 Circle를 포함한다. 활동드라마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설명해주고 대화의 수준과 만족의 수준뿐만 아니라 만짐의 수준도 보여주었다. 이렇게 Circle는 참가자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그에 적절한 색의 Circle을 일치시키고 그에 맞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활동드라마에 등장한 사람들의 관계와 자신들의 실제 삶에서의 관계를 비교하고 대조해 볼 수 있었다. 이로써 자신들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을 평가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 속에서 허용될 수 있는 만짐, 말, 신뢰를 선택하도록 배울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성교육 뿐 아니라 Circle을 통하여 인간의 존중 인권교육이 병행되어 발달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다.

2017년 늘푸른동산 사업소개 및 운영방침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7년 2월 23일 16:00~17:30
담 당	김 은 속
장 소	본관 1층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7년도 늘푸른동산 사업 소개 및 운영 방침

1. 목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서비스 내용

- 1) 프로그램 이용기간 : 3년 이용 이후 재평가 통해 1년 더 연장가능
(서비스 계약서 상단에 이용기간 날짜 명시되어 있음)
- 2)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7:00까지 진행(송영서비스 시간제외)

3) 세부프로그램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09:30	내관지도					
09:30-10:00	조회 및 프로그램 나눔					
10:00-10:50	생활미용관리	*아쿠아 피트니스	*아쿠아 피트니스	음악활동	환경미화활동 /인권교육 /*환경교육 /*농장체험	
10:50-11:30	성교육	개인위생 관리훈련	개인위생 관리훈련	컴퓨터교육		
11:30-13:00	점심 식사 및 양치지도					
13:00-14:00	보드게임 /요리활동	*에어로빅	일상생활 훈련	체육활동 /지역사회 시설이용	*스트레칭	
14:00-14:30		헬스, /공예활동 /이용인 월례회의	통합활동	*미술활동	*방송댄스	
14:30-15:00	간식시간				간식시간	
15:00-15:30	*체육활동 (스트레칭)					간식시간
15:30-16:00						
16:00-16:20	헬스			청소시간	간식시간	청소시간
16:20-16:50			간식시간	헬스	헬스	
16:50-17:00	종례 및 귀가 지도					

*표시는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활동임

4) 신규사업

<이용인 자기결정훈련 사업>

- ① 이용인 월례회의(월 1회, 익월 프로그램 논의)
- ② 자기결정 참여활동
(연 2회, 일일 프로그램 및 식사 등을 직접 계획하여 프로그램 실시)

5) 외부지원사업

- ① 공동모금회지원사업(푸르미 3사업)
- ② 문화예술지원사업(미술/3월 중 실시)
- ③ 장애인체육회지원사업(미정, 음악줄넘기)
- ④ 생활체육강사파견사업(배드민턴 / 3월6일부터 주 1회 진행)

6) 기타사업

- 월 1회 : 지역사회시설이용 실시
- 년 6회 : 체지방측정(4회), 독감예방접종(1회), 건강진단(1회)
- 년 4회 : 구강교육, 비만교육, 위생교육(2)
- 년 4회 : 상하반기 소방교육, 재난교육(2)
- 주 1회 : 비장애인과 장애인 통합활동
- 년 2회 : 상하반기 욕구조사, 만족도조사, 보호자 욕구조사
- 년 2회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등반대회, 지역축제 참여
- 이용인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부모상담- 수시
부모교육- 년 4회 실시
부모회 모임- 년 4회 실시
가족여행- 5월 중 제주도 2박 3일 여행
가족송년모임 실시 - 12월 중 실시되며, 가족 모두 참석하여 본 센터 사업
보고 및 시상식 진행

제 6 장 부모회

제16조 (부모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부모 모임을 부모회라 칭한다.

제17조 (부모회 및 부모교육)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를 개시한 날부터 이용인의 부모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실시하는 부모모임이나 부모교육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이용료

- ① 이용료는 130,000원이며,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첫째주 금요일까지 입금
(단,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세대의 경우 이용료는 50% 감면)
- ② 식대는 월 단위로 50,000원 금액을 현금납입하며,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첫째주 금요일까지 입금

<2017년도 월 이용료 산출근거 내역>

구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여가 생활 지원 활동비	아쿠아피트니스 이용료	8,600원	월4회×30,000원≒14
	방송댄스 이용료	8,500원	월4회×2,125원
	공예체험 재료비 및 강사료	10,000원	월1회×10,000원
	미술 재료비	5,000원	월4회×1,250원
	요리활동 재료비	5,000원	
	통합활동비	10,000원	
	지역사회시설이용비	10,000원	월1회×10,000원
	기타활동교구 교재비 (인지학습, 음악활동, 생활미용 관리 등)	27,900원	월1회×10,000원
	소계	85,000원	
행사 활동비	가족송년모임	25,000원	1회×25,000원
	소계	25,000원	
생계비	간식비	20,000원	4주×5,000원
	소계	20,000원	
	기타운영비	—	
	총계	130,000원	

③ 환불

제14조 (환불)

- 이용인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 중단 시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 운영 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상황에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환불규정을 정한다. 즉, 15일 이전 종결 시에는 이용료 및 식대는 50%를 지급하고 15일 이후 종결 시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4. 서비스 종결 내용

운영규정 중 제 9조 <서비스 종결>

본 주간보호센터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포기 -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강제종결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이용인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대상자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무단으로 연속 2회 이상 결석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때

3. 일시종결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나, 일정 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2) 이용자의 장애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무단으로 서비스에 연 5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4)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5) 일시종결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단, 일시종결은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화재)가 있는 경우 1개월로 국한하며 1개월이 지날 경우 자동종결 된다.

2017년 2차 늘푸른동산 부모교육

-성인기 발달장애인 교육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7년 5월 26일
담 당	김 은 속
장 소	서면자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기 발달장애인 교육

■■■■ 교육의 필요성 ■■■■

- 최근 특수교육통계(교육부, 2011~2015)에 따르면, 고등학교와 전공과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학 및 취업을 하지 못한 장애성인은 2011년 30.8%, 2012년 31.1%, 2013년 40.9%, 2014년 37.1%, 2015년 43.6%로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같이 비교적 장애 정도가 심각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성인기에 고용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교육은 물론,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가운데 통합된 지역사회에서 한 성인으로서 다양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박승희, 2004)
-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라는 장애유형의 특성 상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전 생애에 걸친 교육적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들의 수용 가능인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미정, 2015)
-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성인기 자녀의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이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의 배치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과 이들에 대한 교육적 대책 마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성 등을 희망하고 있다.(조창빈 외, 2016)

■■■■ 교육내용 ■■■■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정한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평생교육법」제2조 제1호)을 의미한다.
- 그러나 발달장애를 가진 국민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활동, 즉 평생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전공과 교육을 포함한 중등교육을 마친 이후 더 이상의 적절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그동안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워왔던 기초생활기술을 점차 잊어버리고 지역사회 적응에도 어려워하며, 자립생활능력 유지에 곤란을 겪는다. 생활기술, 사회성기술, 지역사회 적응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골간으로 하는 기본 교육과정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2014년(5월20일) 법률(제12618호)로 제정 공포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며(제1항), 이를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고(제2항),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제3항)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법」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 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목표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교육프로그램의 목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성인으로서 다양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축약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성인교육의 목표는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상호의 주요 영역들인 자기관리 및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여가생활, 직업생활 역등에서 개인적인 수행과 발달을 촉진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에는 인생의 발달단계에 걸쳐 요구되는 것들을 성공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요하다고 믿는 기술이나 성취분야를 포함해야 할 것임(박화문, 김하경, 2003).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생의 각 해당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종류나 양의 지식이나 기술에는 차이가 있음(Sitlington, Clark, & Kolstoe, 2000).

○ Sitlington, Clark과 Kolstoe(2000)는 제안한 종합적 전환 서비스 모델에서 인생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성취분야로 다음과 같은 9가지 지식과 기술영역 제시

－ ① 의사소통과 학업기술, ② 자기결정기술, ③ 대인관계기술, ④ 통합된 지역사회 참여기술, ⑤ 건강과 신체관리 기술, ⑥ 독립적/상호의존적 일상생활 기술, ⑦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기술, ⑧ 고용기술, ⑨ 후속교육 및 훈련

○ Beirne-Smith, Ittenbach, Patton(2002)은 학업적 기술, 학업지원기술(예: 공부 기술), 사회/개인적 행동, 삶의 기술, 자기결정, 진로형성, 그리고 직업준비와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전환교육에서 포함해야 된다고 제안하였음.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성(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성인이 발달장애인의 가정 및 지역사회 생활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과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각과교육 과정’으로 구성한다.

구 분	과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시수
기 본 교 육 과 정 (필 수)	개인생활	개인위생관리	-몸의 청결과 유지, 계절과 장소에 맞는 옷 입기, 건강한 식사습관, 규칙적인 시간관리	15
		정리와 정돈	-침구와 방안 정리, 청소, 세탁물 처리	
		위험에 대한 대처	-위험상황 분별, 위험상황 예방, 위험상황 대처	
		성 인식	-성에 대한 인식, 성에 맞는 행동, 이성에 대한 바른 인식	
	가정생활	가족의 이해	-집의 위치와 주소(전화번호) 알기, 가족의 구성과 성명 알기, 가족의 역할 알기, 가족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알기	15
		가족 돕기와 요청	-식사준비 돕기, 심부름하기, 화초·애완동물 돌보기, 분리수거 등	
		전화걸기와 받기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걸려온 전화 받기, 핸드폰의 기능 활용하기	
		친지와 가까운 이웃	-친지와 가까운 이웃의 이해, 친지의 관계와 호칭, 인사예절과 관계, 관혼상제의 이해, 방문과 초대 예절	
		성 역할	-나의 성에 따른 가족 내 성 역할 이해와 행동	
	지역생활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명, 도농구분, 특산물이나 명소 등 지역의 특성 이해	15
		주요 장소와 기능	-주요 기관(학교, 관공서, 역이나 터미널, 공항 등)의 기능을 알고 찾아가기, 지역사회 랜드마크 알고 찾아가기	
		교통수단 사용	-대중교통수단 이해와 이용하기	
		예절바른 대화	-예의 바른 인사하기, 감사하기, 사과하기, 질문하기, 대답하기	
		지역사회 이용	-자주 이용하는 가게, 세탁소, 식당, 미용실, 목욕탕, 병원, 복지관 등의 위치를 알고 필요할 때 이용하기	
		소득과 지출	-자신의 소득(용돈 등)을 관리하고 규모 있게 지출하기, 현금지출과 카드지출, 대중교통수단 지출	
		진로와 직업	-일의 종류, 잘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나에게 맞는 직업	
		성 예절	-이성에 대한 바른 태도,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분명한 태도와 도움요청	

출처: 최복천외(2014)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구 분	과목	교육 내용	프로그램 정의	시 수
기 본 교 육 과 정 (선 택)	기초 문해 (군)	한글문해	- 발달장애 성인들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15 이 상
		한글생활문해	- 문자를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해활용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학력 보완 (군)	초등학력 보완	-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프로그램	
		중등학력보완	- 중·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프로그램	
		고등학력보완	- 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프로그램	
	직업 능력 향상 (군)	기초직업교육	- 직업생활을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의식과 작업태도 및 습관 그리고 직업지식 및 정보 등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전문직업교육	-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현직에 있는 근로자들이 직무 수행 상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자격인증	- 장애인들이 주로 종사할 수 있는 표본 작업기능을 익혀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인문 교양 (군)	사회재활	-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생활에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수준 높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생활소양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며,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소양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며 문학·역사·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문화 예술 (군)	여가 스포츠	레저스포츠를 포함하여 체력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목적으로 여가 시간에 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문화예술향유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문화예술숙련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구 분	과목	교육 내용	프로그램 정의	시 수
	시민 참여 (군)	시민의식	장애인의 권리를 찾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민역량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민활동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개인 및 집단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자료: 김두영 외(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출처: 최복천외(2015).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 교육방법 ■■■■

- 강의형 교육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성 및 현황
 -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
- 실습 연계형 교육
 - 국내 대학 중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곳을 견학하여 지식·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대학에 다니거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해 볼 수 있다.

■■■■ 참고자료 ■■■■

- 참고문헌 국립특수교육원(2014).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
- 김두 외(2015).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에 관한 부모의 요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박승희(200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교육프로그램의 개관 및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9(1). 39-75.
- 백종남(20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특수학교 학부모의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 과 실천. 16(3), 407-427
- 윤점룡, 양종국, 원성옥, 강병호 (2011).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 연구. 아산: 국립특수 교육원.
- 이미정(2015). 이유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 함께걸음 2015년 5월호. 서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창빈·김두. 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4), 1-24.
- 최복천 외(2015).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참고사이트 국립특수교육원 평생교육 자료실: <http://www.knise.kr>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사후 대비

■■■■ 교육의 필요성 ■■■■

- 발달장애자녀를 둔 가족의 양육부담감은 양육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지만, 부모 사후에 그들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가장 심각하고도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노충래·고인숙, 2004; 최지선 외, 2009).
- 이에 자신의 부양의무가 소멸된 이후에도 성인기 발달장애자녀가 지역사회에서 능한 한 독립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처우나 인권유린 등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부모가 준비해야 할 다양한 사안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교육내용 ■■■■

1. WIAG(When I Am Gone) 증후군과 평생계획의 중요성
 - 일생동안 지속적인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다수의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내가 병이나 죽음으로 인해 자녀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때 과연 내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Gordon et al., 2000; Smith & Tobin, 1989). Lefley & Hatfield(1999)는 이러한 현상을 “WIAG(When I Am Gone) 증후군”이라고 함
 - 발달장애인의 수명이 이전에 비해 길어짐에 따라 부모는 노후에도 장애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사후에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됨. 특히,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지원 등이 미비하고 재정적인 지원 또한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장애 부모가 갖는 자녀의 장래문제에 대한 불안과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최지선 외, 2009)
 - 미래에 대한 계획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당면하는 과제이지만, 전 생애에 걸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있어, 특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있어 평생계획은 중요함. 평생계획은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성년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수단과 과정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왔음(Freedman, 1997)

예) - Gordon et al.(1997)은 정신지체자녀의 경우 평생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위급한 상황에 직면 하게 되면 주거장소의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신체적,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위험성이 있고, 사회복지사도 응급조치적인 주거배치를 찾는 것에만 시간을 소요하여 장애자녀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 - Heller(1991)는 미리 주거계획을 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은 부적절한 시설에 배치되어질 수 있으며, 심리적인 준비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주거이동으로 인한 충격 (transfer trauma)을 겪게 될 수도 있음을 지적

2. 평생계획 이해

○ 평생계획(permanency plan)이란 일차적 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장애인을 위해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그들의 특수한 욕구에 맞게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보호를 계획하는 과정임(Lisa,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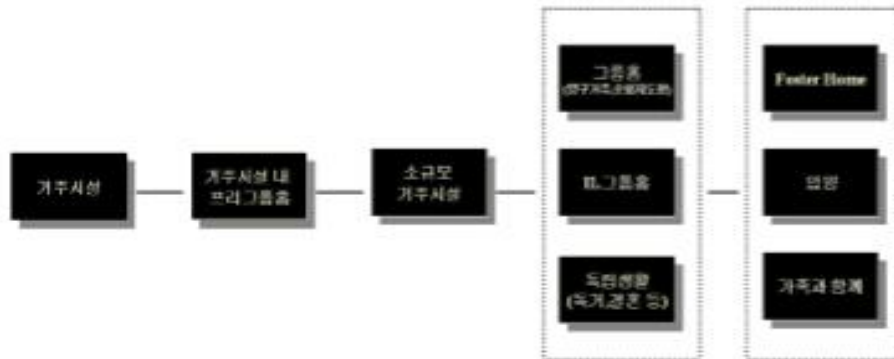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평생계획은 세 가지 차원의 사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즉, “무슨 돈으로 살아갈 것인가”하는 재정적 계획(financial plan), “어디서 살 것인가”하는 주거계획(residential plan), 그리고 후견인 제도와 같은 법적 계획(legal plan) 으로 구성됨(Smith & Tobon, 1989)

- 재정적 계획 : 재정적 계획은 일차적 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장애인이 무슨 돈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측면으로 여기에는 소득보장과 자산관리 그리고 직업재활이 포함됨

장애자녀는 경제활동에 전혀 참여할 수 없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경제적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장애자녀는 일생동안 자신의 기본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타의 비용(예. 보호비용,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비용 등)도 타인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정계획은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가 질병이나 죽음으로 인해 장애자녀를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재산을 장애자녀의 몫으로 저축하거나 상속시켜 관리하는 것, 혹은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 등을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재정계획은 장애자녀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전체비용과 부모의 재정능력(예. 현재 수입 및 미래의 예측 수입, 자산 등)과 함께 국가에서 지원되는 수당, 비용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이동귀, 2002).

- 주거계획 : 평생계획 중 주거계획은 장애자녀가 일차적 보호자로부터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어디에서 거처하면서 보호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원가정과 원외가정(예. 생활시설, 그룹홈, 치료보호시설 등)에 의한 보호로 구분 될 수 있음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주유형(housing options)의 예〉



〈장애유형 및 욕구에 맞는 거주환경 구성 예〉

- 거주장소만 제공(주택임대)
- 거주장소+관리서비스(건물수선, 공과금 관리 등)만 제공(공동주택)
- 거주장소+관리+미약한 개별지원(제협업)
- 거주장소+관리+식사+미약한 개별지원
- 거주장소+관리+식사+개별지원(그룹홈, 케어홈)
- 거주장소+관리+식사+개별지원+간호지원(요양홈)

출처: 발달장애인정책기획단(2011)

※ 주거계획은 장애자녀의 생활주기, 일상생활능력, 재정능력, 그리고 사회지지체계의 동원가능성 등의 다양한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장애자녀가 타인의 도움 없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느냐의 문제와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지지체계가 어느 정도 동원가능한가의 문제와 연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거계획은 장애자녀의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시설이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마련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 법적 계획 : 장애자녀는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여도 의사결정의 내용과 의미, 영향 등을 이해하는 많은 한계를 갖게 됨. 따라서 부모가 장애자녀를 더이상 돌볼 수 없을 때 장애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장애자녀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줄 수 있는 후견인을 지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법률계획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법률 계획은 나아가 장애자녀의 주거계획 및 재정계획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부모와 마찬가지로 장애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 즉 후견인을 지명하는 것과 이러한 재산의 상속 및 후견인 의 지명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음(이동귀, 2002)

○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및 활용방안

예)	
○ 개요	
-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이 2011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 민법개정 이전의 행위무능력제도인 금치산자·한정치산제도는 장애당사자의 의사나 장애정도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법률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정신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기능과 제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음	
○ 특징	
- 다원론적 법정후견제도 도입,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제도 도입, 성년후견제 대상 (정신적 능력 저하된 노인까지 포함), 신상보호 의무 강화, 제3자 후견인 및 복수후견인 도입, 후견감독인제도 신설, 청구권자 확대, 등기에 의한 공시	
○ 성년후견제의 주요 내용 이해	
- 성년후견 분류, 성년후견인의 직무제한, 성년후견인의 선임 ,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성년후견인의 변경, 성년후견감독	
○ 사례를 통해 살펴본 성년후견제 활용방법	
- 인권 유린, 재산 편취 사례등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설명	
구분	성년후견인 제도 내용
의의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지적장애, 자폐아, 정신장애 및 치매 노인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성년에 관한 무능력자 보호제도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관할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청 구 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유언장 및 유산처리 이해와 관련 서류 작성법

예)

- 유언장 작성 방법
- 유산 처리 절차 및 관련 서류 작성법 이해
- 유산 처리 서류외의 보완자료 작성법
(자녀 특성, 의료기록, 관계망, 일상생활 능력 등)
 - 의향서(A letter of intent)는 법적 문서는 아니지만 개별 장애인을 매일 보살피는데 필요한 사항들, 식이, 신체활동, 권리, 의학적 관리 등에 대하여 세세히 남길 수 있음. 또한 목욕, 착탈의, 식사 준비, 의사소통 등의 일상생활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해당 장애인을 돕기 위해 보조인이 어떻게 해주는 편이 좋은지에 대하여 문서 혹은 영상물로 기록해두는 것을 권장

3. 재산 관리 및 금융지원

- 신탁(trust)제도 활용
 - 소득보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주요급여는 소득과 자산에 근거하므로 일정한도 이상의 소득과 자산이 있는 경우 급여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정부로부터의 급여자격을 지속시키는 방안으로 장애자녀의 재산을 다른 비장애 자녀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으나, 비장애자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비장애자녀 가족의 절박한 상황(질병이나 파산 등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상황)에서도 정신장애 자녀의 재산이 유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이때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정부로부터의 급여자격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것임(서미경, 2006)

예)

- 신탁제도의 주요 내용 이해 및 활용 방안
 - 신탁의 개념
 - 신탁의 설정
 - 신탁의 공시
 -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
 - 신탁재산의 독립성 등

○ 보험 및 금융혜택 정보 및 활용

예)

 장애인 금융혜택

보험료	소득공제	•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추가 공제 가능
연금보험	증여세 면제	• 4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보험료 부담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음
신탁	증여세 면제	• 5억원 이내 증여세 면제 • 증여세 면제 혜택은 특정 조건 (본문 내)에 부합해야 함
은행 상품	생계형 저축 또는 세금우대저축	• 생계형 저축 - 비과세 혜택 • 세금우대저축 - 세금경감 혜택

■■■■ 교육방법 ■■■■

- 강의형 교육
 - 평생계획에 대한 이론 및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성년후견제, 신탁제도 등에 대한 법률적 이해
- 참여형 교육
 - 재산관리, 주거계획 등과 관련된 사안 토의 및 경험 나누기
- 실습연계형 교육
 - 자녀를 위한 유언장 작성, 의향서 작성하기

■■■■ 유의사항 ■■■■

-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며, 일상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도록 할 것
- 재산관리, 주거계획 등은 각자의 상황과 자녀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이를 서로 발표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참여자들이 자신의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고재욱. 2014. “발달장애아동의 의사결정능력과 자기결정권에서 후견인제도 도입 고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1), 188-207.
- 김고은. 2011.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노년기 어머니의 평생계획 수립”.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8. 39-63.
-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1). 성년후견인의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서미경 (2006). 성인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모형: 뉴질랜드 정신보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2), 33-56.
- 이동귀 (2002). 부모 사후를 대비한 장애자녀의 평생 계획. 도서출판 특수교육.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2010). 장애부모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성년후견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논의.
- Lisa, R. (2000). Overview on permanency planning
(<http://www.aaatc.org/man11.htm>)
- Lefley, H. and Hatfield, A. B. (1999). Helping parental caregivers and mental health consumers cope with parental aging an loss. Psychiatric Services, 50(3), 369-375.
- Morgan, P. L. (2009). Parenting an adults with disabilities or special needs. (전 미역, 부모가 알아야 할 장애자녀 평생설계. 부키)
- Smith, G. C. & Tobin, S. S. (1989). Permanency planning among older parents of adults with lifelong disabilit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4(3/4), 35-59.

2017년 3차 늘푸른동산 부모교육 -장애자녀의 성교육 지도방법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7년 8월 25일 ~ 8월 31일
담 당	김 은 숙
장 소	서면자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 자녀의 성교육 어떻게 할까요? (장애인 성교육의 이해와 방법)

본 자료는 지적자폐성 장애아동 대상으로 성교육 지도방법이 쓰여 있으나, 사전 준비 시 본 센터 성인 장애인 지도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 자료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유의해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장애인 성교육의 필요성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비장애 아동·청소년과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면 장애 특성과 발달상 특별한 감각통합의 문제와 낮은 지능으로 인한 미숙한 긴장 해소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게 할 수 있고, 도리어 교육을 잘못 인지하여 유사 성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은 비장애 아동·청소년보다도 더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입장임을 고려하여 사회 성문제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예방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로 인한 제약된 생활환경으로 성교육의 기회마저 부족한 실정에서 성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인도 단체나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비장애인처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적·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많은 지도자와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들은 성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불안함과 불안전함에 대해 고민하여 성교육 자체를 거부하거나 단순하게 저연령의 비장애 수준의 내용으로 교육을 하거나, 교육 대신 일방적 강압과 심지어 최면적인 지도로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의 불안전감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지적·발달장애인의 성과 관련하여 함께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우리 사회와 일반 사람들의 결핍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생애 전반에 걸친 성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하고 성장 발달에 따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성의 인지를 도와야 한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에 특성과 교육수준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함을 통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소통하며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 꿈꾸는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일까?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행복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명예를 추구하려는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머슬로우 Maslow) 등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신체적, 지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의 생애주기를 겪으며 각각의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이 비장애

인들보다 많이 필요하다. 사회성 교육(사회적응)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중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성교육이다.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성적 느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인 행동을 보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 이번 교육 목표이다.

장애특성상 보호자(부모, 생활교사 등)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 표현을 한다. 가족, 보호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또래친구나 다른 사람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가족, 보호자 이외의 관계에 따른 적절한 친밀감 표현법을 익히지 못하면 특히, 친밀감이 성행동이나 성폭력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더욱이 성에대한 장애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친밀감으로 다가가 성폭력 가해를 하여도 성폭력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러므로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성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생활연령에 맞게 교육받지 못하고 인지연령에 따라 유아적으로 지도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령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았다. 따라서 장애학생들 각각에 맞는 적절한 성행동지도를 비롯한 구체적인 성교육이 진행되어야한다.

II. 장애인의 성행동 지도 사례

사례1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지적장애 남학생입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에는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며 지냅니다. 그럴 때는 무료해서 그런지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라 그런지 요즘은 학교와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시간에도 성기를 만진다고 합니다. 담당선생님이 주의를 준 뒤에는 선생님 앞에서 성기를 만지는 행동은 줄었다고 하는데 안보는 곳에서 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춘기의 자연스런 행동이니 너무 혼내지 말라고 하는데 장애아이다 보니 더 걱정이 됩니다.



자위에는 여러 원인 (무료함, 스트레스, 아토피, 모방, 성적호기심 등)이 있겠지요. 원인에 따라 지도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초등 4학년이라면 사춘기가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원인은 달라도 성기를 자극

하면서 성적 자극으로 옮겨 가겠지요. 그러므로 사춘기 자위지도 방식으로 지도하셔야 합니다.

지나친 자위행동의 지도 방법

■ 남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한다.

자위행위를 해도 좋은 장소를 결정하여, 그 이외 장소에서는 부끄럽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방이나 화장실(개인 화장실)과 같은 사적 장소에서 하며 문을 닫고(장애정도에 따라 문을 잠그지 않고 닫고 사용한다. 다른 사람은 노크하기) 하도록 알려줍니다.

■ 청결을 유지한다.

자위행위에 있어서 생식기에 상처를 입히거나 불결한 장소에서 하거나 하면 감염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생식기를 청결히 하는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고 사용한 화장지는 휴지통에 잘 싸서 버리도록 합니다. 자위행위 때 속옷, 이불 등을 더럽히지 않도록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나 남자보호자가 뒤처리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목욕할 때 생식기를 깨끗이 씻는다.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생식기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손톱을 자른다. 배변 후에는 항문을 깨끗하게 닦는다.)

■ 츄리닝과 같은 바지를 입히지 않는다.

츄리닝은 바지에 손을 집어넣고 수시로 음경을 만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음으로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자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옷을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있다면 츄리닝 보다는 지퍼, 허리띠가 있는 바지를 입히도록 합니다. 이는 성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 운동을 생활화하고 다양한 취미나 여가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어려서부터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운동이나 잘하는 운동을 길러줍니다. 또 운동과 같은 레저 활동은 과도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일깨워 줍니다. 흥미가 있는 수업이나 등산, 수영, 페인팅, 찰흙놀이, 요리 활동, 콜라주 등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고 오감 만족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 TV시청 시에는 누워서 보지 말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본다.

또한 눈치를 보며 선생님이나 친구들 몰래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인지 보셔야합니다.

① 눈치를 보며 하는 행동 : 개별 성교육을 통해 자기 방에서만 해야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보면 기분 나빠하고 창피한 것에 대한 느낌과 성행동 지도를 하시고 부적절한 자위행동이 나타나면 바로 제지하는 것을 반복해야겠지요. 부모님께도 자기 방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다른 장소에서는 제지하도록 하셔야합니다.

②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 : 자위행동이 나타날 때 마다 ‘창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양손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놀이나,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도를 위해서는 혼자 방치되는 시간이 없어야겠지요. 학교 친구들도 자위를 한다고 해서 성적인 말투나 비웃지 말고 편안한 말투(일상어)로 창피한 행동이라 안 본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후 관심을 주지 말아야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자기 방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다른 장소에서는 제지하도록 하셔야합니다.

사례2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는 자폐아입니다.

6학년이지만 등치도 또래보다 작고, 인지도 3~4살 정도입니다.

어려서부터 좋아 하는 사람을 보면 안아주고 뽀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친구를 보면 먼저 안아주고 볼에다 뽀뽀를 합니다. 그런데 반 아이들이 변태라고 놀리고 옆에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친구에게는 뽀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딸아이도 알았다고 약속하지만 학교에 가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좋아서 하는 행동인데 반 아이들한테 변태라고 놀림을 받는 것도 속상하고, 커서도 계속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사회생활을 하여도 장애인이 또래 친구를 사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또래친구들과 대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을 익히고 이성에 대한 감정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아동들 끼리 놀이가 어려우면 지도자(보호자, 도우미)가 놀이에 함께 참여하여 놀면서 게임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비장애 아이들과는 신체 접촉 없이 말로 인사하지만, 장애 아이에게는 안아주기부터 한다면 학교나 외부에 나갔을 때에 그 아이는 좋은 사람과는 무조건 안으려 듭니다. 이럴 때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집에서(거실) 아이가 돌아오면 말을 많이 시키고 “이러이러해서 엄마는 너를 안아주고 싶구나. 안아도 되겠니?” 라고 하며 신체 접촉을 해야 합니다. 장소와 사람에 따라 친밀감 표현과 신체 접촉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또래친구들과의 대화, 놀이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적이고 직접적인 스킨십을 배제하고 게임을 통한 규칙, 약속에 의한 생활연령과 친구관계에 맞는 자연스런 스킨십을 배워야합니다. 이런 놀이, 여가문화 없이 이성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성교제를 할 때는 어디까지 스킨십을 해야 하고 언제 만나야 하는지 등의 교육·상담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과 반 아이들에게도 장애친구에게 적절한 인사와 대화법을 알려줄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 친구가 안아주거나 뽀뽀를 하려고 하면 ‘뽀뽀하는 건 싫어, (손을 흔들며) 안녕, 하고 인사하자.’라고 얘기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거절하는 것과 친밀감 표현하는 방식을 알려주어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의해 적절한 표현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3



고2 남학생입니다. 어린 시절이 좋았는지, 시계가 거꾸로 갔으면 좋겠다. 중학생이 되려면..... 등등의 질문을 자주합니다. 특히 유모차를 타고 있는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교실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업어줘 !”가 있는데, 한동안은 그냥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한번은 선생님에게 “업어줘”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래~ 업어 줄게 !”하고 돌아서서 업히라고 했더니, 발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살펴보니, 퇴행이라기보다는 발기된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원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친구는 어떻게 지도해야할까요?



생활연령에 맞는 친밀감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젠 너무 커서 업을 수가 없어. 힘들어. 어디 얼굴 좀 보자. 우리 뭐할까?”하며 팔을 가볍게 두드리주거나 손을 잡아주며 친밀감을 표현하며 대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4



중학생인데 혼자 목욕을 하고 나면 옷을 벗고 돌아다니거나 거실에서 갈아입습니다. 난 그저 어린 아들로 보이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창피하다고 합니다. 오빠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딸에게 알려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옷은 어디서 벗어야 하나? 목욕할 때 옷을 벗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아무데서나 벗을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목욕탕, 화장실, 자기 방, 탈의실 등에서 벗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빨래통에 대한 개념** : 목욕을 할 때 대부분 그냥 흰 던저 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수영장 등에 가서도 같은 행동을 하게 되므로 옷을 예쁘게 개서 옷 놓는 곳(또는 바구니)에 놓아두는 습관을 갖도록 목욕할 때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여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도록 합니다.

사춘기를 준비하는 초등학생이 되면 목욕을 스스로 하도록 지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함께 목욕하기 보다는 부모님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목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옷은 거실(공공장소)에 갈아입지 말고 욕실이나 자기방에서 갈아입도록 지도하고 목욕하며 자연스런 스킨십을 원한다면 대중 목욕탕이나 수영장을 이용하여 장소와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례5



초등 6학년 남학생들이 교실에서 여학생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같은 반 특수학급(지적장애 2급) 남학생의 바지를 내리게 하고 고추(음경)를 만지라고 하면서 그 장면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만진 것도 아니고 장난친 것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건 잘못했는데 자기만 본 것이고 인터넷에 올릴 생각은 없다고 또 장난이라고 하며 잘 못했다고만 합니다. 학생들은 이것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학생은 지금도 친구들이 놀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교육을 시작해야 하나요?



뉴스에 나오는 위험한 상황만을 성폭력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다 성폭력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사회의를 통해 가해학생 중 주동한 학생에 대한 징계나 가해적 행동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성폭력 상황을 방임한 것이지요. 함께 웃고 놀렀다면 더 큰 잘못이고요. 그 학생들도 (집단)상담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은 성폭력피해 상담과 그에 필요한 심리치료, 놀이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하겠지요. 피해부모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위의 내용을 담아 합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신고를 원한다면 법적 처벌(촉법소년)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같은 반 여학생들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춘기의 밝고 건강한 성이 왜곡 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경우

비디오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벗은 몸을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2(카메라 등 이용 촬영)위반행위가 되므로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Ⅲ. 지적장애아동의 성폭력 발생 현황 및 대책

1. 지적장애아동의 성폭력 발생상황

간혹 지적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고도 평소에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여 피해상황을 누구에게 어떻게 호소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신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 협박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 지식과 문제해결기술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3,4학년 때부터 집중적인 성교육을 통해 자기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일관된 성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적장애아동은 목격과 발견, 신고 후에도 의사소통이 쉽지는 않다. 자신이 당한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여 그림이나 인형으로 표현하거나 다양한 의사소통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적장애아동이 직접 자신의 성폭력을 알리기 어렵다면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상담교사 등은 장애 학생과 성을 중심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훈련이 필요하다.

일부 지적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성폭력 피해를 자신의 자녀가 인지부족으로 무능력하여 나타났다고 여기고 자녀 탓으로 돌리기도 하여 아예 상담이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거꾸로 일부 비장애 가해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장애 학생들 탓으로 돌리기도 하여 모든 문제를 장애 피해학생이 떠안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서 더 위축되고, 무능력감을 느끼는 상태로 빠져버리게 된다.

2. 지적장애아동의 성폭력 피해 특성

*(이현혜 2007: 정신지체아동의 성 바로알기-성학대 예방을 위한 지침서)

- ① 지적장애아동은 일반적으로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 ② 근친간을 포함한 강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③ 성폭력의 주 피해 연령은 중고등학생이지만, 그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④ 성폭력 피해를 입는 주 대상이 3급의 경증 정신지체장애아동이다.
- ⑤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아는 사람이다.

- ⑥ 성폭력 피해 상황 진술 시, 지적장애아동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 ① 장애아동의 말을 믿는다.
: 대부분의 경우 성폭력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②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 ③ 장애아동이 피해사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녹음을 해서 여러 번 반복 진술하는 상황을 피한다.
- ④ 장애아동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분노를 나타내면 그 분노를 자신에게 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대화한다.
- ⑤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
: “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 ⑥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준다.
- ⑦ 병원진단을 받는다.
- ⑧ 장애인이 보는 앞에서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는다.(스트레스가 과도할 수 있다)
- ⑨ 비밀유지: 꼭 알아야 할 사람에게만 아이의 피해사실을 알린다.
- ⑩ 성폭력상황에서 즉시 보호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 ⑪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거나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낸다면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 ⑫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4. 장애인의 성교육·성상담·성범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탁틴내일성폭력상담소 02-3141-6191
-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02-742-0142
- 장애청소년 임파워링센터 에반젤리 031-388-2977
- 청소년상담지원기관 (국번 없이) 1388
- 여성폭력상담기관 (국번 없이) 1366
-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02)3013-1367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지역별 상담전화
<http://cafe.daum.net/nsvpcca>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참고문헌

- 2008 통합학급 성폭력 현황과 성교육 방향모색 심포지움 / 탁틴내일 (추국화, 송재민 외)
- 2007 정신지체아동 성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한 지침서 / 경원사회복지회(이현혜)
- 2011 장애인 성교육의 이해와 방법 / 학부모연수자료(추국화)

2017년 열린일터 사업 안내 및 운영지침 교육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17년 1월 12일 19:00
장 소	열린일터 작업장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2017년 열린일터 연간 사업 일정

날 짜		내 용
1월	9일	시무식
2월	—	동아리활동 시작(주, 주)
	6일	1차 운영위원회의(서면)
3월	17일~18일	직원연수 (17일 휴무)
	31일	1차 등산활동
4월	14일	2차 등산활동
	21일	데이캠프
	27일	복지관 성인 이용인 연합체육대회
5월	5일	비루고개축제
6월	2일	3차 등산활동
	21일	2차 운영위원회의
7월	31일~8월 4일	하계휴가(예정)
8월		
9월	15일	4차 등산활동
	27일	3차 운영위원회의
10월	13일	5차 등산활동
	26일~27일	가을여행
11월	3일~5일	직원연수(3일 휴무)
	10일	6차 등산활동
	29일	4차 운영위원회의
12월	19일	남동송년예술제
	29일	종무식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매월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I. 2017년 일일 시간표

오전	09시 00분 ~ 09시 30분	조회 / 작업 준비
	09시 30분 ~ 10시 3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0시 30분 ~ 10시 50분	쉬는 시간
	10시 50분 ~ 11시 50분	프로그램 및 작업
오후	11시 50분 ~ 13시 00분	점심시간
	13시 00분 ~ 14시 1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4시 10분 ~ 14시 30분	쉬는 시간
	14시 30분 ~ 15시 4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5시 40분 ~ 15시 50분	쉬는 시간
	15시 50분 ~ 16시 4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6시 40분 ~ 17시 00분	청소 및 종례

III. 2017년 근로자 및 훈련생 명단

근로자	훈련생
김형범, 김상준, 강웅혁 김훈범, 이해민, 남빛, 한운철 이재상, 홍미리, 이형석 (10명)	조상환, 김동하, 강병철, 조준희, 양세정 하은미, 박찬혁, 황정하, 조국태, 황지선 김민아, 고혜민, 남아랑, 김경환, 노가영 이소영, 이민지, 이혁배, 박용완, 김재권 김현아 (21명)

IV. 2017년 프로그램 참여 이용인 명단

프로그램명		담당자	횟수	이용인 명단
지역사회 적응훈련	근로자	양정현	연6회	근로자 전체
	훈련생	금민희	월2회	훈련생 전체
성교육		금민희	연6회	이용인 전체
인권교육		윤성호	연6회	이용인 전체
안전교육		양정현	월1회	이용인 전체
건강교육		김지혜	연7회	이용인 전체
동아리활동		금민희, 양정현 이보경, 윤성호	월2회	신청자
근로자 기본교육		이보경	월1회	근로자 전체
자판기 관리	근로자	윤성호	주1회	김훈범, 이형석
	훈련생		주3회	김경환, 고혜민
사회기술 훈련 (훈련생)	1반	금민희	월2회	하은미, 김현아, 김재권, 김경환 조준희, 황지선
	2반	이보경	월2회	황정하, 조상환, 고혜민, 이혁배 김민아, 이소영, 박찬혁
	3반	윤성호	월2회	양세정, 남아랑, 이민지, 노가영 강병철, 조국태, 박용완
운동 (비만관리)	근로자	류수진	주3회	김상준, 김형범, 한운철, 홍미리 남빛
	훈련생			양세정, 이혁배, 황정하
컴퓨터교육(훈련생)		컴퓨터 강사	주1회	이민지, 이소영, 박용완, 김재권 김현아
공예훈련(훈련생)		금민희	주3회	남아랑, 이민지, 김현아, 김재권 고혜민, 이소영, 조상환, 황지선
정서지원 프로그램(훈련생)		류수진	주1회	조준희, 남아랑, 황지선

V. 보호고용 운영지침

제정 2011.1.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의 근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 프로그램생은 ‘훈련생’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보호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2. 보호고용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 다.

제4조 (근로자의 정의)

본 지침에서 근로자라 함은 본 규정 제 2장에 의거해 보호고용 근로자로 선정되어 근로 계약이 된 자

제 2 장 근로자 선정 및 계약

제5조 (근로자 선정) 근로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로자 선정은 ‘근로자 선정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인들 중 6개월 이상 이용하였으며 ‘근로자 선정평가’를 2회 이상 실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매 연말 분기별 실시한 ‘근로자 선정평가’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근로자 10명을 선정한다.

제6조 (근로자 선정평가)

‘근로자 선정평가’는 본 시설을 1개월 이상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제7조 (근로 계약)

근로자로 선정된 이용인과 시설장은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써 근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3 장 프로그램

제8조 (재활프로그램)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직업적응훈련 : 보상기능훈련, 인성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 2)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3)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 평가
 - 4)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5) 지역사회 자원 활용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제 4 장 복 무

제9조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난,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일시)

1. 근무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개정 2015.1.1][개정 2017.1.1]
3.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에 의한다.[개정 2015.1.1]

제11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근로자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5.1.1.]
2. 조퇴라 함은 근로자가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5.1.1]
[개정 2017. 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5.1.1]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지정된 출근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제12조 (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개정 2014.1.1]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2조의 1 (대체공휴일)[본조신설 2014.1.1]

1. 추석 및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13조 (임시휴무)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근무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경우

제14조 (휴가)

1. 본 시설은 여름과 겨울에 정기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시기와 휴가 기간은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
2. 본 시설은 1년에 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신설 2017.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2017.1.1]

제15조 (특별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특별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5.1.1]

1. 결혼 : 본인(5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개정 2015.1.1]

2.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개정 2015.1.1]

3. 배우자 출산 :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단, 최초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이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시행 2013.2.2) [개정 2013.1.1][개정 2014.1.1]

4.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 휴가 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제16조 (병가)

질병 및 상해로 직무 불능일 때 60일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제17조 (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 5 장 임 금

제18조 (임금지급 기준 및 방법)

1. 근로자는 월1회 임금을 지급받는다.[개정 2014.1.1]
2.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지급한다.[개정 2015.1.1]
3. 임금은 서류상 절차를 거친 후 근로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한다.

4. 근로자가 시설에 납부할 이용료 및 중식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임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단, 본인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다.[신설 2014.1.1][개정 2017.1.1]
5. 시설은 매출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여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1.1]

제 6 장 종 결

제19조 [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 포기

근로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강제 종결

- 1) 정신병적 또는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근로자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 하였을 때

3. 일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정기간의 치료로써 증세가 회복 될 가능성이 있을 때
- 2) 이용인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3)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 4) 60일의 병가 이후에도 출근이 어려울 때[신설 2015.1.1]
- 5) 일시종결 시 기간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4. 계약종결

‘근로자 선정평가’결과 근로자로 선정 되지 않았을 때

제 7 장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제20조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서비스 담당자는 근로자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내에 근로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21조 (손해배상)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근로자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부모회의

제22조 (부모회의)[신설 2013.1.1]

1. 보호고용 근로자의 보호자는 부모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VI.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2011.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작업활동프로그램생의 훈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차 보호고용 등으로 전이되어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프로그램생은 ‘훈련생’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에게 적용되며,
2.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훈련생 정의)

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진단 및 재활계획회의 결과 신규 이용이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개정 2016.1.1]
2. ‘근로자 선정평가’ 결과 작업활동프로그램 대상으로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

제 2 장 서비스 과정

제5조 (훈련생 선정 및 과정)

1. 훈련생 선정을 위한 이용인 모집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 결원 시 접수 된 순서대로 진단한다.
2. 초기면접과 직업평가 후 재활계획회의를 실시하여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 현장평가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평가 기간은 일주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
3. 타기관의 동일한 진단(1년 이내)을 통해 의뢰된 경우, 현장평가를 통해 이용을 결정한다.[개정 2016.1.1.]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생으로 계약할 수 없다.

1. 이용기간이 만료하여 이미 퇴소한 자
2. 2011년 1월 1일 이전 입소자 중 이용기간이 5년 초과된 자
3.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소자 중 3년 훈련 후 보호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한 자
단, 3년의 훈련기간 연장자는 훈련을 지속하고, 그 후 보호고용 전환이 되지 못한 경우는 훈련생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7조 (훈련계약)

훈련생으로 입소가 확정된 훈련생과 시설장은 훈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써 훈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년 중 입소자의 경우에는 입소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약일로 한다.

제8조 (구비서류) 열린일터 훈련생으로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계약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이용인의 권리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복지카드 사본 1부
6. 건강진단서 1부
7. 기타 시설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서류

제9조 (훈련기간)

3년간 훈련생으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3년 훈련 후 평가를 통해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훈련생에 한하여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훈련내용 및 훈련비)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거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1.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생이 장차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4시간 이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다.
 - 1)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 2)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에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
 - 3) 작업훈련 : 작업 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 4) 직업평가 :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
- 5) 통근훈련 : 지역사회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 6)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 7)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작업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

2. 훈련비

- 1) 매월 정액의 훈련비는 없으나, 훈련 내용에 따라 실비를 납부할 수 있다.
- 2) 중식비는 매월 5일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련수당 지급)

1. 훈련생은 월1회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개정 2014.1.1]
2. 훈련수당은 훈련계약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90% 미만 출근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1]
3. 훈련생이 시설에 납부할 이용료 및 중식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훈련수당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단, 본인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다.[신설 2014.1.1][개정 2017.1.1]
4. 시설은 매출의 상황에 따라 훈련생에게 상여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1.1]

제 3 장 복 무

제12조 (훈련생의 책임) 훈련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훈련생은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난,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훈련일 및 훈련시간)

1. 훈련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개정 2015.1.1][개정 2017.1.1]
3. 휴게시간은 훈련계약에 의한다.[개정 2015.1.1.]]

제14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훈련생이 오전9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5.1.1.]
2. 조퇴라 함은 훈련생이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5.1.1]
[개정 2017. 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5.1.1]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지정된 출근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6. 이용기간 만료로 인한 종결을 앞두고 타기관 이용을 위한 현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현장평가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한다. 단, 종결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현장평가 기간은 회당 최대 2주로 하고, 3회까지 인정한다.[신설 2015.1.1]

제15조 (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개정 2014.1.1]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5조의 1 (대체공휴일)[본조신설 2014.1.1]

1. 추석 및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16조 (임시휴무)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훈련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 직원교육으로 인해 훈련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5.1.1]

제17조 (휴가)

1. 본 시설은 여름과 겨울에 정기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시기와 휴가 기간은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
2. 본 시설은 1년에 5일의 휴가를 주고, 출근으로 인정한다. 단,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신설 2017.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2017.1.1]

제18조 (특별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특별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5.1.1]

1. 결혼 : 본인(5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개정 2015.1.1]
2.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개정 2015.1.1]
3. 배우자 출산 :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단, 최초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이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시행 2013.2.2)[개정 2013.1.1][개정 2014.1.1]
4.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 휴가 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제19조 (병가)

질병 및 상해로 직무 불능일 때 60일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제20조 (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21조 (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생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 포기
훈련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기간 만료

훈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강제 종결

- 1) 정신병적 또는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훈련생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 하였을 때

4. 일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훈련생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정기간의 치료로써 증세가 회복 될 가능성이 있을 때
- 2) 훈련생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3)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훈련생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 4) 60일의 병가 이후에도 출근이 어려울 때[신설 2015.1.1]
- 5) 일시종결 시 기간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제22조 (훈련개시, 종결, 통보)

훈련 담당자는 훈련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내에 훈련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4 장 대기자

제23조 (대기자) 서비스 담당자의 서비스 이용 의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서비스를 유예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시가 유예된 대상을 ‘대기자’로 칭한다.

1. 현 서비스 대상자가 정원에 달했을 때
2. 특수학교 및 학급에 재학 중일 경우 (단, 고3에 한해 대기할 수 있다.)
3. 본 시설 이용 중 특별한 사유(이용인 및 보호자의 입원 혹은 수술, 보호자의 출산 등)에 의해 2개월 이상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시종결을 하고 우선 대기(1순위)를 신청 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24조 (손해배상 등)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훈련생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6 장 부모회의

제25조 (부모회의)[신설 2013.1.1]

1.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의 보호자는 부모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교육 “CIRCLES”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17년 11월 9일 19:00
발표자	금민희
장 소	열린일터 작업장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 - 성교육 : CIRCLES

1. CIRCLES소개

-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성적 개인 공간과 사회적 거리, 사회-성적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83년 미국에서 처음 소개됨.
- 발달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는 사회적 거리와 친밀감의 수준, 적절한 사회적 행동의 미묘한 뉘앙스를 아는 것에 있다고 보고 간단한 로드맵을 만들어 사회적 상황을 따라가게 하는 로드맵을 찾아내었음.
- 여섯 가지 색깔로 된 Circle을 사용해 다양한 수준의 친밀감과 관련된 행동을 범주화시켜 교수모델로 개발함.
- 각각의 CIRCLES는 색깔, 행동, 친밀감과 거리감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함.
- 발달장애인들이 친밀감과 대인관계의 다양한 수준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좋은 사회적 기술은 자존감 위에 구축된다고 봄.
- 발달장애인이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고 존중감과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시작하며, 자존감과 자율성을 지닐 때 안녕을 느끼게 된다고 봄.

1)Circle 구성

- 총 3부로 구성됨. (제1부 친밀감과 대인관계 ; 제2부 폭력 그만 ; 제3부 에이즈 -안전한 방법) 본 교육은 1부만 다루었음.
- 친밀감과 대인관계는 개인의 다양한 대인관계에 있는 거리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활동 비디오를 통해 참가자들의 학습참여를 도움.
- 활동 비디오는 참가자들이 Circle 개념을 행동으로 옮기고 토의하도록 도우며, 역할놀이 매트와 조각인물 그림, 개별 그래프를 학습할 때 사용함.

2)Circle 개념

- 여섯 가지 색을 지닌 Circle를 사용해 사회적 거리와 친밀감을 가르치는 방법
- 중심 Circle의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색을 지닌 Circle는 중심에서 멀어짐에 따라 그에 맞는 행동과 느낌, 활동을 갖음.
- 예시: 파란색 Circle에 들어가는 “가족”은 자신이 껴안을 수 있고, 애인에게는 키스할 수 있으나 멀리 떨어진 주황색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는 손만 흔들 수 있음.

3)여섯 가지 색의 Circle와 그 의미

(1)보라색의 사적인 Circle

- 당신은 당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 당신이 원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만질 수 없다.
-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한 그들을 만질 수 없다.

(2)파란색의 껴안는 Circle

- 당신을 껴안을 수 있고, 또 당신이 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과 애인이다.

(3)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당신이 가볍게 안을 수 있는(다정하지만 친밀한 껴안음은 아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한 날에 초대받아 온 친한 친구들이다.

(4)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당신은 아는 사람들과 악수하고 또 당신이 누군가에게 소개될 때 악수한다.

(5)주황색의 손 흔드는 Circle

- 당신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또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서 인사한다.

(6)붉은색의 낯선 사람 Circle

- 당신은 지역사회와 도우미들과는 일과 관련하여서만 접촉한다.
- 당신은 낯선 사람들을 만지지 않는다.
- 낯선 사람들은 당신을 만지지 않는다.
- 당신은 당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안 돼”라고 말할 때와 자리를 떠날 때를 결정한다.

- Circle는 다양한 수준의 친밀감을 구별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도움.
- 이 프로그램은 사회규범과 개인 나이에 따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침.
- 발달장애인들이 개인적 책임감을 키우고 사회통합을 잘 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음.
- 발달장애인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발달시킴으로써 자기결정과 상호 존중을 잘 하도록 도와 복잡한 세상에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행동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함.

4) 발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Circle

- Circle는 사회적 역할을 범주화 하고 그와 관련된 “ 만짐, 말, 신뢰”와 함께 그에 해당되는 색을 지닌 Circle를 포함함.
- 활동비디오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설명해주고 대화의 수준과 만족의 수준, 만짐의 수준도 보여줌.
- 참가자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그에 적절한 색의 Circle을 일치시켜 그에 맞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함.
- 활동비디오를 통해 자신들의 실제 삶에서의 관계를 비교하고 대조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를 평가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 속에서 허용될 수 있는 만짐, 말, 신뢰를 선택하도록 배울 수 있음.

5) 3개의 “T” : 만짐(Touch), 말(Talk), 신뢰(Trust)(⇒사회적 경계)

- Circle에 있는 3개의 “T”인, 만짐(Touch), 말(Talk), 신뢰(Trust)는 여러 관계들에 있는 행동, 인지, 애정을 상징화 한 것임.
- 다양한 관계들에 있는 전반적인 정서적 분위기를 나타냄.

6)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

- 6개의 질문은 참가자들이 관계에 대해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도록 도움.
- 각 활동비디오에는 6개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고, 이것이 특별한 대인관계를 맺는 Circle을 결정하게 하는 결정 요소임.
- 대인관계에 있는 친밀감의 특징 6가지 요소

-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알아왔는가?
-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 사람을 보아왔는가?
-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일반적인 유대를 그 사람과 맺고 있는가?
- ✓당신은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는가?
-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얼마나 깊은가?
-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한가?

- 6가지 결정요소들 각각의 양이 크면 클수록 대인관계는 더 친밀함.
- 이 결정요소들을 사용해 발달장애인 자신들의 실제 대인관계를 평가할 수 있음.
- 이 훈련으로 참가자들이 배운 것을 다양한 장소에서 실제 대인관계에 일반화 시키도록 준비시킴.
- 이 6가지 질문과 Circle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이나 거리감에서의 상호작용을 알게 되면 오래된 관계와 새로운 관계를 충족시키는 만짐, 말, 신뢰를 스스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함.

2. 각 과의 구성과 주요한 내용

- 각 과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목표, 방법, 요약, 평가, 심화학습, 지원활동, 심화학습, 비판적이고 주요한 사고를 위해 만일의 사항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눔을 하는 것으로 구성됨.
- 목표에 대해 확인 또는 전 시간 내용을 복습하고, 활동비디오를 시청한 후 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활동 비디오의 내용을 질문하고 확인함.
- 활동비디오의 내용과 참가자의 실제 상황을 대입해 질문하고 확인함.
- 3개의 “T”에 관하여서 확인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익힘.
- 이 외에 각 과의 내용에 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를 제시하고 답해보도록 함.

1) 제1과 : 나에 관한 것(보라색의 사적인 Circle)

-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줌.
- 내가 나에 대해 잘 알아야하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확인함.
- 보라색의 사적인 Circle에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특별한 사람임을 강조하도록 함. 모든 사람은 보라색의 사적인 Circle에 는 혼자만 들어가며 원래 굉장히 소중한 존재임을 알도록 함.

2) 제2과: 가족(파란색의 꺼안는 Circle)

- 이 과에서 다루는 가족은 직계가족임을 알도록 할 것.
-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음.
- 이 Circle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3가지 “T”를 확인하도록 함.(세 범위를 다 포함하나 낭만적인 것은 아님.)
- 만짐: 사랑을 보여주지만 낭만적인 사랑이 아닌 방식으로 꼭 꺼안는 것.
- 말: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는 것.
- 신뢰: 가지 가족을 전적으로 믿는 것.

3) 제3과: 애인(파란색의 꺼안는 Circle)

- 이 과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표현방법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음.
- 애인이 있는 경우 소재를 해보면서 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인식하도록 함.
- 애인이 없는 경우 이상형을 이야기해보며 애인으로서 부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도 확인하도록 도움.(미성년자, 기혼자, 폭력, 거짓말, 외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 등)
- 배우자 선택 기준 및 동성애 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나 가치판단은 제외하고 알려줄 수 있음.

- 이 Circle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3가지 “T”를 확인하도록 함.(세 범위를 다 포함하고, 낭만적임.)
- 만짐: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방식으로 껴안고 친밀하게 만지고 키스함.
- 말: 가장 친밀하고 낭만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음.
- 신뢰: 서로의 느낌을 존중하고, 서로 믿으며, 서로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임을 믿음.

4)제4과: 친척(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이 과에서는 친척의 개념, 호칭에 대해 다룸(친가, 외가).
- 친척과의 관계에서 성인기인 발달장애인의 지위(위치)를 알고, 어른으로서 그에 맞는 행동과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 친척과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하도록 함.
- 연애하지 않기, 애인과 하는 낭만적인 만짐 없기, 사적 신체부위 만지지 않기, 비밀이 있으면 안 되고, 비밀 지키지 않도록 함.
- 공적인 신체부위는 만질 수도 있음.
- 만짐: 가볍게 껴안으면서 애정을 나타내지만 꼭 껴안거나 낭만적이지는 않음.
- 말: 개인적인 소식을 나눌 수는 있으나 친밀한 것은 아님.
- 신뢰: 친척들을 대개 믿는데, 일부로 상처를 주지 않으며,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줄 것임을 믿음.

5)제5과: 친한 친구들(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우정 관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함.
- 성적 활동이 제외된 좋아하는 관계이며, 같이 있는 것이 기분 좋은 관계임.
- 애인과는 다른 차원으로 애인보다 소중한 관계일 수 있음.
- 친구의 유무를 묻고, 없다고 하는 경우 내가 “친구 되어주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줌.
- 친구와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역할: 위로, 수다, 비밀이야기, 적당한 장난, 다투었을 EO 화해하는 방법 등
- 우정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알기
(지시, 명령, 홍보기, 거짓말, 왕따, 성적 관계, 욕하기, 고자질, 폭력, 시기질투, 비난, 도벽, 돈거래, 비밀폭로 등)
- 만짐: 특별한 경우에 친절하고 애정 어린 방식으로 가볍게 껴안음.
- 말: 사적인 이야기나 유쾌한 잡담을 함께 이야기함.
- 신뢰: 일부로 자신의 감정을 해지치 않는다는 것을 주로 믿을 수 있음.

6)제6과: 이웃 사람들(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고 손만 만질 수 있는 관계임을 이해하도록 함.

- 일상적으로 “예의”있게 할 수 있는 대화나 인사를 알려주기(날씨이야기, 인사하기, 안부 묻기, 정치에 관한 이야기, 뉴스나 드라마 등 TV프로그램 이야기 등)
- 일상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태도를 갖추도록 적절한 피드백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음(인사는 한번만 하기, 함부로 만지지 않기, 도움주기 등)
- 내 이웃을 의심하기도 해야 함을 알려주도록 함.
- 비밀이 있으면 안 되고, 성적인 활동도 안 되며, 이런 일이 발생된 경우 부모와 기관의 직원에게 알릴 것을 이야기해주어야 함.
- 만짐: 이웃사람들과 인사할 때만 그들과 악수하고, 이 때 손만 만짐.
- 말: 사적인 관계를 갖지 않지만 정중하게 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발달장애인이 대화의 깊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란색 Circle이 나를 드러낼 수 없고 친절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봐야하는 관계임을 이해하도록 도움)
- 신뢰: 이웃사람은 조금만 믿는데, 그들의 이름 외에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임.

7)제7과: 아는 사람들(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이 과에서는 학교나 기관의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공적인 신뢰관계에 있는 아는 사람임을 알도록 함.
- 존경하는 관계이고 예의를 꼭 지켜야하는 관계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아님.
- 권위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믿는 것임.
- 선생님이나 기관 직원 외에 비슷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음,(자원봉사자, 실습생, 사회복무요원, 자활근로자 등)
- 만짐: 권위가 있는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만 그들과 악수하며 이때 손만 만짐.
- 말: 아는 사람들과 사적인 관계를 갖지 않지만 정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님.
- 신뢰: 아는 사람들을 조금만 믿는데 이름 외에는 아는 게 없고, 그들의 전문성을 믿음.

8)제8과: 어린 아이들(주황색의 손 흔드는 Circle)

- 이 과에서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 다루지만 주로 모르는 아이들에 대해 알려줌.(조카 등은 제외)
- 성인인 발달 장애인이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해야함을 이야기함.
- 친인척을 포함해 아이들이 예쁘거나 귀여워도 하지 말아야할 행동: 만지거나 뽀뽀, 사적신체부위 만지지 않기

-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경우나 욕을 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역할극 및 발화훈련을 통해 표현해 볼 수 있음.⇒ 자기옹호 하도록 지도(하지 마, 그만해, 나쁜 거야,/내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
-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경우 성인 발달장애인이 주의할 사항을 인지하도록 지도함, ⇒놀이의 주도자는 아이들임.
- 만짐: 손 흔들고,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여주지만 절제 만지지 않음
- 말: 짧게 응답해주지만 길게 말하지는 않음.
- 아이들을 거의 믿지 않는데, 그들이 미성숙하고 어른의 책임을 모르기 때문임.

9)제9과: 지역사회도우미(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

-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지역 내 도우미들은 명확한 신분이 있음.
- 잘 모르는 경우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정수기코디, 방역담당자, 인터넷설치기사, 배관공, 집배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 부정적인 내용을 인식하도록 함.(무조건 믿을 구는 없는 관계임.)
- 가족이 없는 경우나 혼자 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기, 개인적인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고, 돈이나 선물, 칭찬을 해 주는 것에 속지 않기 등
- 만짐: 일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만지지 않는 관계임
- 말: 일과 관련해서만 말할 수 있음.
- 신뢰: 일과 관련해서만 믿을 수 있음.

10)제10과: 의료진들(붉은색의 낯선 사람들의 Circle)

- 의료진에는 의사 간호사 외에도 접수계원, 약사 등도 있음을 이해하도록 함.
- 사적 신체부위를 만질 수 있으나 이는 성폭력 등 성적 활동이나 관계가 아닌 일과 관련해서만 일어나는 일임을 이해하도록 함.
- 의료진은 몸이 아플 때 찾아가지만, 몸이 아프지 않아도 검진을 위해 만날 수 있음.
- 사적인 정보를 이야기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일과 관련해서만 하는 경우임을 이해하도록 함.
- 만짐: 일과 관련된다면 그들을 만지거나 자신을 만질 수 있음.
- 말: 일과 관련해서만 말함.
- 신뢰: 함께하는 일과 관련해서만 믿을 수 있음.(그들의 실력, 전문성 등)

11)제11과: 완전히 낯선 사람들(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

-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임(길가의 행인, 쇼핑센터 내 쇼핑객 등)
- 낯선 사람과 말을 할 때 : 내가 실수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등 얼마 되지 않는 상황임.
- 적절한 사과, 괜찮다는 응대, 길을 잃었을 때 할 수 있는 첫 말 걸기 등 직접

역할극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음.

- 낯선 사람이 주는 것은 먹지 않기, 돈을 빌려주거나 도움주지 않기, 착한일 하지 않기, 짐 들어주지 말기, 끌려갈 때는 소리를 지르고, 단둘이 있는 경우 저항으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가르침(역할극을 통해 해 볼 수 있음.)
- 만짐: 낯선 사람을 만지지 않음.
- 말 : 낯선 사람과 말하지 않음.
- 신뢰: 낯선 사람들을 믿지 않음.

3. 정리

Circles는 단순히 성교육만을 다루기보다는, 환경 속에 속한 사람을 보고 그 관계와 친밀감을 주제로 하여 “내”가 중요함을 가장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시설에서 성교육과 인권교육, 그 밖에 직업적응훈련 등에서 분절된 내용으로 각각을 프로그램화해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Circles는 이러한 프로그램 어디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매 회마다 지속적으로 다루고, 매 회마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보며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어 도움이 된다.

평생을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 자신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나아가 자녀 자신 스스로 존재감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밑바탕을 형성하는데 이번 부모교육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우리 시설에서 꾸준히 지원할 성교육이 가정에서의 지원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에게 성교육 실시했을 경우의 효과성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갖고 재고하셨던 보호자의 마음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우 해소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 또한 보호자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자녀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단, Circles가 미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적용한다면 더 없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7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남동발간 2018-4호

- 발행일 : 2018년 1월
- 발행인 : 서 현 정
- 편집인 : 이 연 정
-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만수동)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